

# 부동산 거품 꺼지면 ‘가계부채發 경제쇼크’ 온다

상반기 주택 관련 가계빚 948兆  
상업용 등 포함 땀 80% 달할 듯

“부동산 담보가치 떨어질 경우  
금융기관 연쇄 부실로 이어져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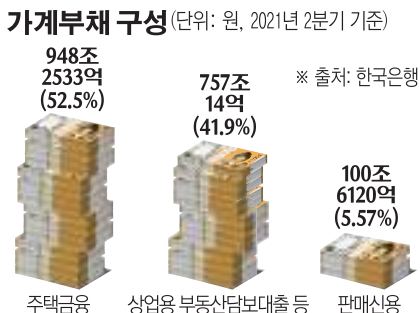
올 상반기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 관련 대출 비중이 50%를 돌파했다.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당장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진단된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부동산 가격 폭락 등 자산 거품이 꺼질 경우에는 가계 파산과 함께 실물경제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가계부채발(發) 충격파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8일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가계부채의 구성을 살펴보면 주택 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규모는 948조2533억 원으로 가계부채의 52.51%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873조294억 원 대비 8.62%포인트 급증한 규모다.

기타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규모는 757조14억 원으로, 가계부채의 41.92%를 차지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2분기 부동산업 대출은 전분기 대비 70% 급증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대출 규모는 약 280조 원으로 집계됐다. 예보 관계자는 “신용대출의 상당액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한 이른바 ‘빚투’ (빚 내서 투자)와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종잣돈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해마다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금융과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 등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생산활동을 촉진하는 신용카드 사용이나 자동차 등 기타 내구재 소비에 기인하는 판매신용은 5.57%에 머물고 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가계부채는 충분한 담보나 미래소득 등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부채(판매신용) 대신 비생산적인 자산 거래(부동산)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결국 현재의 가계부채 구조는 부동산 자산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이 금융기관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심승규 일본 아오야마가쿠인 대학 부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비생산적 자산거래에 의존해 성장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 교수는 “가계부채의 과도한 양적 팽창은 가계에 잠재적 위험이고, 정책당국에는 정책 실행 과정에서 제약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지나치게 양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자칫 부동산 시장 전반에 충격을 가해 부동산 담보가치의 하락 등의 결과를 낳는다면, 금융기관들의 연쇄적인 부실과 경제 전반의 충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수소 기업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출범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1 수소모빌리티+쇼’에서 기업 총수들이 포스코 부스 앞에 모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허세홍(왼쪽부터) GS그룹 사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허정석 일진홀딩스 부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사장. 조현호 기자 hyunho@

## 수소 강국, 막강해진 ‘K-수소 드림팀’

현대차·SK·포스코 공동 의장사 맡아... 15개 회원사, 매년 9월 총회서 협력 논의

수소 경제 활성화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 기업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Korea H2 Business Summit)’이 탄생했다. ▶관련기사 4·5면

국내 수소 경제를 주도하는 15개 회원사로 구성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8일 경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각 회원사 최고경영자와 기업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창립총회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대표이사 사장, 허세홍 GS그룹 사장, 정기선 현대중공업그룹 대표이사,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사장,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 허정석

일진 부회장, 구동휘 E1 대표이사, 최윤범 고려아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회원사 간 수소 사업 협력 추진 △수소 관련 투자 촉진을 위한 글로벌 투자자 초청 인베스터 데이 개최 △해외 수소 기술 및 파트너 공동 발굴 △수소 관련 정책 제안 및 글로벌 수소 의제 주도를 통해 수소 경제 확산과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임무를 수행한다.

초기 회원인 현대차·SK·포스코 3개 그룹이 공동 의장사를 맡고, 현대차가 차례로 돌아가며 회의체를 대표하는 간사를 맡아 수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

현재까지 현대차그룹, SK그룹, 포스코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GS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두산그룹, 효성그룹, 코오롱그룹, 이수그룹, 일진(단일기업), E1, 고려아연, 삼성물산이 정회원으로 가입해 협의체는 총 15개 회원사로 구성됐고, 향후 지속해서 외연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매년 9월 전 회원사가 참여하는 총회를 열고 관련 주요 이슈와 현황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매년 상반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투자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정기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해 국내외 투자자들을 초청한 뒤 수소 관련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수소 공급, 수소, 인프라 영역의 다양한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가치사슬 전후방의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가는 데 집중한다. 유창욱 기자 woogi@

##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는 위드 마스크

중대본 “앞으로 4주간 고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다시 2000명대로 치솟았다. 수도권 확진자 수는 연일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예방접종 목표치 달성을 앞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는 ‘위드(with) 코로나’ 전환의 유일한 걸림돌이 됐다. ▶관련기사 6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0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발생은 2014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665명), 인천(120명), 경기(691명) 등 수도권에서만 147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역대 최대치다.

정부는 방역 안정과 예방접종 목표치

(고령층 90%, 성인 80%) 달성을 전제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확산세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도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앞으로 4주간이 고비”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경각심 이완과 방역수칙 완화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마스크를 벗는 것이 아니다”며 “어제 정은경 질병청장도 방역 체계가 바뀐다 하더라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위드 코로나는 더불어 ‘위드 마스크’”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빅테크 규제’에 주저앉은 네이버·카카오

네이버 7%·카카오 10% 주가 급락

‘플랫폼 공룡’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폭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인터넷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 문제를 지적하며 규제 강화 의지를 밝힌 데다, 전날 금융당국이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금융 플랫폼에서 다른 금융사의 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없게 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카카오는 전날보다 10.06% 하락한 13만8500원에 마감했다. 시총순위는 5위로 밀려났다. 시총 3위인 네이버는 7.87% 떨어진 40만9500원에 장을 마쳤다.

▶관련기사 16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한 건 각종 규제 악재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갑질 논란은 카

카오 주가를 10% 이상 끌어내렸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갑질 방지 대책을 묻자 “부가통신사업자인 카카오톡에 대한 규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의 규제 리스크도 있다. 전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계열 금융 플랫폼에서 펀드와 연금 등 다른 금융사의 투자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시장 독점 논란 등까지 불거졌다. 여당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이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공론화하며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송갑석·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7일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열고 카카오를 저격했다. 송 의원은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 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 비트코인, 엘살바도르 ‘진짜 돈’ 되자마자 가격 추락

## 법정화폐 첫날 진통

산살바도르 대규모 반대 시위  
디지털 지갑·ATM 한때 오작동  
장중 4만3000달러 붕괴 급락  
부켈레 대통령, 저가 매수 나서



중남미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의 스타벅스 매장에 비트코인 결제 전용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산살바도르/로이터연합뉴스

중남미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인정 첫날인 이른바 ‘비트코인데이’는 극강의 변동성을 맞본 하루로 마무리됐다.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디지털 지갑의 기술적 결함 소식이 나온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다.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대규모 비트코인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등 엘살바도르는 세계 첫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첫날인 7일(현지시간) 진통을 겪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엘살바도르는 이날부터 비트코인을 달러와 같은 ‘진짜 돈’으로 채택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세금을 낼 때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월 초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1 콘퍼런스’에서 비트코인 법정통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지 90여 일 만의 일이다.

하지만 도입 직후부터 말썽이었다. 부켈레 대통령은 이날 새벽 트위터에 “치보는 서버 용량이 급증하는 동안은 작동이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가입과 함께 30달러(약 3만5000원)어치 비트코인을 준다면 엘살바도르 정부 공식 디지털 지갑 ‘치보(Chivo)’는 오전 내내 가입이 되지 않는다는 후기가 소셜미디어에 도배되며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 치보는 ‘쿨(Cool)’을 뜻하는 엘살바도르 현지 은어이다.

비트코인을 달러로 입출금할 수 있도록 엘살바도르 전역에 설치된 200대의 ATM은 달러화를 입금한 후 입금 확인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치보와 ATM 관련 문제는 정오가 다 돼서야 해결됐다.

기술적 결함으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

인 데이’가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자 가상 자산(가상화폐) 시장은 요동쳤다. 엘살바도르의 공식 법정화폐 도입 직전 5만2000달러대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한때 4만3000달러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장중 낙폭은 17%(24시간 전 대비 기준)에 달했다. 최근 상승세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폭탄까지 겹친 영향이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7월 이후 약 75% 상승했다.

가격이 급락하자 부켈레 대통령은 저가 매수에 나서 추가로 150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고 밝혔지만, 낙폭을 줄이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이날 추가 구매분을 포함해 약 550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됐다.

비트코인 도입 전부터 엘살바도르 내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현지 호세시메온 카나스대학이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가 비트코인 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70% 이상이 미국 달러 사용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산살바도르의 한 식료품 가게 주인은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위조지폐를 받는 위험을 막아 준다”며 “가격 변동성이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위기를 볼 때 나는 기회를 본다”고 긍정했다.

비트코인 지지자들과 투자자들은 도입 첫날 혼란에도 여전히 엘살바도르의 실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1인 가구도, 아이 없어도, 아파트 특공 가능해진다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개편

우선공급 줄여 30% 추첨  
민영 사전청약부터 적용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 공급 청약기회 확대에 나선다. 지난달 26일 개정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한다.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생애최초 특공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된다. 하지만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

### 민간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운영방식 변경 내용

※ 출처: 국토교통부

| 구분 | 소득기준       | 선발방식    | 구분                                  | 소득기준       | 선발방식     |
|----|------------|---------|-------------------------------------|------------|----------|
| 민영 | 우선공급 (70%) | 130% 이하 | 1단계                                 | 우선공급 (50%) | 130% 이하  |
|    | 일반공급 (30%) | 160% 이하 | 2단계                                 | 일반공급 (20%) | 160% 이하  |
|    |            | 추첨제     | 3단계                                 | 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    |            |         | - 추첨제 (1인가구 가능)<br>- 민영주택 (민간분양) 적용 |            |          |

격을 한정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 이 없어도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 청약 을 허용한다. 현행 소득 기준을 초과하 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 (소득 기준 130% 이하)은 50%로 줄어 든다. 30%였던 일반공급(소득 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인다.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 해 추첨한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부부 특 공의 30% 추첨 물량에서 자녀 수는 고 려하지 않는다.

생애최초 특공 시 1인 가구는 전용면 적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 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공 개편으 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11월 이후 확대 도 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하겠 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ry0403@

〈산업부 산하〉

## 공공기관 빚 16조 늘었는데… 임직원 연봉 해마다 올려

문재인 정부 들어 재무구조가 악화됐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 평균 연봉이 해마다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압박에 정규직 채용까지 늘며 인건비 부담도 늘어났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018년 181조7768억 원에서 2020년 198조377억 원으로 2년 새 약 16조5000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기관별은 한국전력이 53조4046억 원에

서 59조7720억 원으로 약 6조3000억 원 늘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30조6530억 원에서 36조784억 원으로 5조원 넘게 증가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도 각각 17조 4749억 원에서 18조6449억 원으로, 5조9241억 원에서 6조7535억 원으로 1조 원가량 부채가 늘었다.

정규직 채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도 증가했다. 39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은 2018년 8만1929명에서 2019년 8만4883명, 2020년 8만6609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전체 인건비 부담도 2018년 6조3773

억 원에서 지난해 7조1007억 원으로 7000억 원 이상 커졌다.

39개 공공기관의 임원 평균 연봉도 증가했다. 2018년 1억5684만 원에서 2020년 1억7252만 원으로 1500만 원 이상 높아졌다. 직원 평균 연봉도 7644만 원에서 7831만 원으로 소폭 늘었다.

공공기관들은 평균 연봉이 높아진 이유가 정부의 경영평가 등급 상향 탓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영평가에서 낮은 수준인 C~D등급을 받고도 자체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박준상 기자 jooon@



## 편견 없는 일터 능력이 보이는 세상

다름을 보기 전에 능력을 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lead.or.kr



장애인서비스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서비스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 기업 허리띠 졸라맬 때 국민은 ‘빚투 욕구’ 강했다

## 가계부채 구조적 문제 제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가계부채 리스크의 크기와 속도가 불확실성에 놓였다. 가계부채 총량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실 위험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급등한 배경에는 개인의 강한 투자 의욕이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상 경기가 상승국면에 진입할 때 기업의 생산적 투자 의욕이 증대되면서 가계의 자금 수요를 압도한다. 한국 경제에선 경기가 상승국면에 진입할 때 기업보다 가계의 투자 욕구가 더 강해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8일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신용과 가계신용의 합인 민간신용에서 가계신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40여 년간 약 30%포인트(p) 상승했다. 민간신용 중 가계신용의 비율은 1981년 20% 정도에 불과했으나, 2019년 50%까지 상승했다. 가계신용이 기업신용보다 더 급속하게 증가한 것이라는 의미다.

가계신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레버리지를 일으켜 자산 투자를 하려는 국내 가계의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경제 순환 모형에서 투자의 주체인 기업은 호경기에 적극적으로 자금 차입을 늘려 투자에 나서

가계, 경기상승 시 레버리지 베풀

가계의 투자, 자산 변동성 키워

생산적 투자 감소시켜 소비 위축

고, 불경기에는 자금 차입을 줄이고 투자를 조절한다. 반면 소비의 주체인 가계는 소득이 증가하는 호경기에는 저축을 늘려 차입을 줄이고, 불경기에는 차입을 늘려 소비를 하고자 한다. 단순하게 말해 가계 신용비율은 경기역행적인 특징을 갖는다.

한국 경제에서는 경기가 상승국면에 진입하면, 기업들의 생산적 투자 의욕보다 가계들의 레버리지 투자 욕구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들이 담보가치가 높고 위험도는 적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이자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낮아진 이자율은 경기가 상승할 때 주가와 주택 가격을 즉각적으로 급상승시키며 과도한 변동성을 초래한다. 이후 금리 조정이 있을 시 주가는 과도하게 하락했고 주택가격은 안정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자산 시장인 주식·주택 시장을 분석하면 경기가 상승국면으로 진입할 때 미국 주식시장이나 한국 주식시장 모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이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p 증가할 때, 미국의 주가는 즉각적으로 2.5%



p 증가한 후 완만하게 충격반응이 사라졌다. 한국의 주가는 즉각적으로 3.5%p 증가한 후, 4분기 후에는 오히려 3.5%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상승률의 경우, 경기가 상승국면으로 진입할 때 미국 시장에서는 별다른 충격반응이 없었다. 한국 시장에서는 즉각적으로 상승률이 올라 2분기가량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관측됐다.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 대학 부교수는 “가계부채 관련 양적 팽창의 문제보다는

가계의 비생산적 자산투자 욕구가 기업의 생산 투자 욕구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을 합한 민간신용 대비 가계신용비율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에서는 경기역행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서는 경기순행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같은 가계의 투자 욕구는 자산 가격의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생산적인 투

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신용의 담보가치 의존도가 높아 오히려 생산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 자동차 등 기타 내구재 소비를 늘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에 따라 늘어나야 하는 판매신용은 2007년 이후 10년 넘게 여전히 가계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가계신용이 1700조 원을 넘길 때 판매신용은 올해 2분기에서야 처음으로 100조 원을 갓 넘어섰다. 김유진 기자 eugene@

## 주담대에 가계대출 6.2兆 증가

8월 주택자금 등 수요 여전  
기업대출 中企·개인사업자↑  
규제 강화했지만 효과 ‘글썄’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하다. 신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당국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규제 약발이 먹히지 않는지, 규제 효과가 아직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과 규제 강화를 대비한 선수요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꺾이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대출 증가폭은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늘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중 정책 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2000억 원 증가한 1046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월(+9조7000억 원), 전년 동월(+11조7000억 원) 증가폭과 견줘 크게 축소됐다.

부문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5조9000억 원 증가해 전월(+6조 원) 내지 전년 동월(+6조1000억 원) 증가세와 비슷했다. 이 중 전세자금대출은 2조8000억 원 늘었다. 주택매매와 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된 데다, 집단대출 취급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기타대출은 3000억 원 증가에 그쳤다.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HK이노엔 공모주 청약증거금이 8월 3일 반환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HK이노엔 반환금이 1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성진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7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됐고, 8월엔 기준금리가 인상됐다. 농협에서 가계대출을 우리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각각 중단한 바 있으며,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 혹은 5000만 원 이내로 규제했다”면서도 “규제나 금리인상 효과는 시차가 발생하는 데다 대출 중단은 일부 은행에 그쳤다. 신용대출 규제 역시 현재 내부검토 중인 사안으로 시행되더라도 9월 중 일부 은행에 그칠 것이다. 전반적인 가계대출 강화 노력이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미쳤겠지만 본격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보긴 어렵다. 금리인상과 추가 규제 강화를 앞둔 선수요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과 투자 관련 수요에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관련 수요까지 크게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계대출이 급격히 둔화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업대출은 7조9000억 원 늘어난 1041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8월 기준으로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3개월 연속 관련 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대기업은 3000억 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중소기업은 7조5000억 원, 이 중 개인사업자는 3조4000억 원 늘어 각각 8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지원이 계속된 가운데 경기개선에 일부 기업들이 시설자금 투자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KB 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치료를 걱정하는 마음 아픈 이야기가  
마음 편히 치료받는 건강한 이야기로!

**KB손해보험**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무)KB건강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위험은 줄이고** 대장양성종양 및 폴립 진단비 보장(특약)  
**보장은 넓히고**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보장(특약)  
**건강은 더하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특약)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시 보험인수자가 원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 및 지급 제한 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자세한 상품 내용과 제반사항은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형 담보의 경우 주기는 10, 15, 20, 30년이며 최대 갱신 종료 나이는 110세입니다. 또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연령증가, 위험률 증가 등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계약갱신 전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업의 상의법 제439049(2021.06.14)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고객센터 1544-0114

KB 손해보험

# “수소경제 주도 플랫폼 도약… 국가 탄소중립 이바지”



현대차그룹과 SK그룹, 롯데그룹, 포스코그룹, 한화그룹 등 국내 10대 그룹이 참여하는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Korea H2 Business Summit)’이 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허정석 일진홀딩스 부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부사장,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사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허세홍 GS그룹 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사장,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구동휘 E1 대표,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 등 내빈들이 총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K-수소 드림팀 결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만큼 못할 것도 없겠다는 자신감이 든다.”(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겠다.”(최태원 SK그룹 회장)

“국가 탄소 중립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8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이날 공식 출범 행사에서 15개 회원사는 수소 시장 선점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기업들이 수소 사회를 구현하고자 결성한 협의체이다. 수소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기업들이 서로 핵심 기술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정 회장은 “서밋은 개별단위 기업 경쟁력 뿐만 아니라 기업, 정책, 금융 부분을 하나로 움직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밋이) 수소산업 생태계 완결성을 높이고 수소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리딩(선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펀드 조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태원 회장은 “협의체 기업들이 유망한 수소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사들은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소 인프라 투자를 추진함으로써 수소 사업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개별社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기업·정책·금융 협력 이끌 것”

#### 15개 회원사, 시장 선점 자신감 사업현황 점검·기업간 협업 다짐

최정우 회장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환원제철을 상용화해 철강 제조 공정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두산그룹은 수소경제 영역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수소 활용 측면에서 터빈, 드론과 같은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생산 측면에서는 그린수소 생산 등에서 핵심역량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15개 회원사 대표들은 서밋 총회를 마친 후 ‘2021 수소모빌리티+쇼’ 부스를 찾아 관람했다.

이들은 SK, 두산, 효성, 현대중공업, 포스코, 코오롱, 현대차 전기관을 차례로 방문하며 기업들의 수소 사업 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현대차 전기관에서 엑시언트 수소 전기트럭을 본 최태원 회장은 “출력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또 “내연기관 트럭이 전부 수소 트럭으로 바뀌면 좋겠다”고 말하자 정 회장은 “그럼 좋겠다”고 화답했다.

###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창립총회 말말말

“경쟁력 갖춘 만큼 못할 것도 없겠다는 자신감 들어”

정의선 현대차 회장

“생태계 활성화 위해 중추적인 역할 할 것”

최태원 SK회장

“탄소중립 위해 포스코 선도적 역할 할 것”

최정우 포스코 회장

“핵심역량 확보해 산업 키울 것”

박정원 두산 회장

“수소 우리 기업들에 무한한 기회의 장 될 것”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

“비즈니스 서밋 우리나라 수소 경제 중추적인 역할 할 것”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계열사 인프라 토대로 기업들과 시너지 발휘할 것”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

“에너지 분야 소재 및 부품 사업에 기술 개발 투자 확대할 것”

조현상 효성 부회장

### 주요 기업 수소 사업 비전

|         |                                                                                  |
|---------|----------------------------------------------------------------------------------|
| 현대차그룹   | 2030년까지 연간 수소전기차 50만 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70만 기 생산<br>2030년까지 수소차 설비투자 등에 11조1000억 원 투자 |
| SK그룹    | 수소사업에 5년 간 18조5000억 원 투자                                                         |
| 포스코그룹   | 2050년까지 수소 생산 500만 톤 체제 구축 / 수소 사업에서 매출 30조 원 달성 목표                              |
| 롯데그룹    | 2030년까지 4조4000억 원 단계적으로 투자 / 투자 통해 2030년까지 청정수소 60만 톤 생산                         |
| 한화그룹    | 그린수소 적극 투자. 투자 규모 1조3000억 원                                                      |
| 효성그룹    | 1조2000억 원 투입해 액화수소 사업 집중                                                         |
| 현대중공업그룹 | 한국조선해양 통해 수소 운송과 그린수소 생산 사업 추진<br>현대오일뱅크 통해 수소 충전소 사업 등 추진                       |
| 두산중공업   | 2022년 완공 목표로 창원 공장에 수소액화플랜트 건설 진행 중                                              |

관람을 마친 후 정 회장은 “협의체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며 “(수소 기술 분야에) 더 진지하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현상 효성 부회장은 “협의체 결성은 당연하다. 생존과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각사의 기술이 안정적이라 협업할 분야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SK, 포스코 등은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수소 비전 실행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연간 수소전기차 50만 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70만 기를 생산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소차 설비 투자 등에 11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은 각각 수소연료전지 사업, 부생수소 생산 사업에 뛰어든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수소 공급망 최적화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SK그룹은 2025년 수소 사업에서 글로벌 정상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이루고자 수소 관련 사업에만 5년간 18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

포스코그룹은 2050년까지 연간 500만 톤의 수소 생산을 추진한다. 이뿐만 아니라 최소 10년 이내에 기술 개발을 마치고 기존 고로 설비를 수소환원제철 설비를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수소 생산 사업을 공략하고, 한화그룹은 그린수소에 1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통해 수소 연료전지 추진선을 개발한다.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오일뱅크는 친환경 사업을 확대해 정유 사업 매출 비중은 40%대로 줄인다.

두산은 이미 수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두산중공업, 두산퓨얼셀 등 계열사 역량을 결집한다. 올해 4월에는 수소 시장을 분석하고자 수소 테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효성그룹은 액화수소 사업에 1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코오롱은 수소 시장 소재 사업을 공략한다.

재계 관계자는 “주요 기업들이 수소 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경쟁이 아닌 공존 및 협력을 택한 만큼, 이른 시일에 성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트럭·지게차·트램·드론… 신기술 뽐낸 ‘수소 코리아’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터 선봬 SK, 블루수소 생산계획 공개 포스코, 수소환원 기술 소개

현대차, SK, 포스코, 두산 등 국내 굴지의 수소 기업들이 8일 킨텍스에서 열린 ‘수소모빌리티+쇼’에서 차세대 기술력을 뽐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현대제철, 현대위아, 현대캐피탈 등 7개 회사가 총출동한 현대차그룹은 수소 기술력을 집약한 근거리 배달용 수소모빌리티 엠비전(M.Vision) 2GO와 도심형 초소형 전기 모빌리티 엠비전 POP을 전시했다.

세계 최초로 양산한 수소전기 대형 상용차인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터도 공개했다.

그 밖에 기존 디젤버스를 대체할 수소 전기버스, 배터리와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가동하는 수소전기



수소 지게차.

트램 등도 선보였다.

SK그룹을 대표해 참석한 SK E&S와 SK㈜는 자사의 차별적인 액화수소와 블루수소 생산 계획을 선보였다.

플러그파워(Plug Power)와 모놀리스(Monolith) 등 글로벌 수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청정 그린·청록수소 확대 계획도 공개했다. 특히, 플러그파워가 아마존, 월마트 등에 공급하는 수소 지게차의 축소 모형과 모놀리스의 ‘카본블랙(Carbon Black)’ 제품도 전시했다.

2025년까지 전국 수소충전소 약 100개소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도 공개하고, SK E&S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내



친환경 트램.

스타트업 기업의 액화수소드론도 전시했다.

포스코그룹은 국내 최초로 수소환원제철 원리와 이를 통해 구현되는 가상 제철소를 모형과 영상으로 소개했다. 수소 환원 제철이란 전통적 쪼들 생산 방식인 고로(용광로) 공법을 대체하는 신기술이다.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해 기존 고로 공법과 달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도 철을 만들 수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에 적용하는 포스코의 강재 솔루션과 더불어 고온에서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고온 수전해 기술 등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와 함께 추진 중인 핵심 기술도 선보



수소 드론.

였다.

수소 저장 분야에서는 복합 수소에너지 터미널의 원리와 사업 개요를 소개했다. 포스코의 강재를 적용한 액체수소저장 탱크, 수소차 연료탱크 등 수소 인프라에 필요한 신규 제품들도 실물 크기로 전시했다.

두산의 경우 (주)두산퓨얼셀과 위BU가 10kW(킬로와트) 건물용, 1kW 주택용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를 전시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발전효율인 10kW 건물용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SOFC)를 처음 공개했다. SFOC는 전력 발전 효율만 놓고 보면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 제품보다 효율이



이동형 수소 충전소.

40% 이상 높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트라이젠도 소개했다. 트라이젠은 수소, 전기, 열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수소와 전기를 함께 충전할 수 있는 복합 충전소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DMI는 내구성, 방수성을 개선한 DS30W 수소드론을 전시했다.

효성도 탄소섬유를 활용한 수소차용 연료탱크와 그린수소 생산의 핵심 설비인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기 모형을 전시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소 밸류체인을 선보였다. 글=김버리 기자 kimstar1215@

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 세계 곳곳 ‘위드 코로나’ 부작용…英 10월 재봉쇄설

이스라엘 신규 확진을 세계 최고  
영국 “최후 수단 도입 가능” 여지  
싱가포르 “중증 감염 낮아” 강행

선제적으로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나섰던 국가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급격하게 확산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2년째 지속되면서 각국이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도모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백신 접종률에 힘입어 일찍이 일상으로의 복귀 정책에 나섰던 국가들이 델타 변이와 돌파 감염 등으로 고전하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의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 글로벌 선두를 달리던 이스라엘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감염이 심각한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옥스퍼드대 통계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일주일간 이스라엘의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일일 신규 감염자 평균은 1013명으로 세계 최다를 기록했다.

이스라엘은 높은 백신 접종률에 힘입어 빠르게 정상화 단계를 밟아 나가던 국가다.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폭다운(도시 봉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던 지난 4월부터 경제활동 재개에 나섰으며, 6월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벗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샤아르 제택 메디컬센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병동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예루살렘/AP연합뉴스

어던졌다. 최근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한 4차 변이 확산에도 강력한 방역 조치 없이 마스크 착용, 미접종자 공공장소 출입 제한과 수용 제한 등 최소한의 수단만 동원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학교의 전면 등교 개학도 강행했다.

지난 6월 아시아 최초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싱가포르에서도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가 넘는 나라에서는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328명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외식 제한 해제 등에 따라 사람 간 접촉 기회가 많아진 데다가, 돌파 감염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감염자의 76%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다. 다만, 싱가포르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감염 후 중증에 이르는 비율은 1% 미만으로, 미접종

자의 6%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7월 19일 ‘자유의 날’을 선포하며 거의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한 영국 역시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섰으며, 입원 환자 역시 9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10월 재봉쇄설’까지 나올 정도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나담 자하위 백신담당 정부차관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10월 방역 규제가 재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자하위 차관과 다른 정부 부처 모두 이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그러한 조치는 국민보건서비스(NHS)가 견딜 수 없는 압박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다시 도입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변호선 기자 hsbyun@

## 코로나 이후 서울 이동량 18% 감소

직장인 평균 출근 시간 53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서울 이동량이 20% 가까이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남성보다 여성의 이동량이 줄었고, 서울 지역 평균 출근시간은 53분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분 단위로 수집되는 방대한 통신 빅데이터와 교통 등 공공 빅데이터를 융합해 ‘서울 생활이동’ 데이터를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로 이동량은 18% 감소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을 오간 이동량은 하루 평균 1867만 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11~12월 하루 평균 2275만 건보다 408만 건 줄었다.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한 유행 시기마다 이동량이 줄었다. 이동량이 가장 많이 감소했던 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인 3차 유행 시기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2월 대비 29.9%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와 함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이동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25세 미만 아동·청소년·청년 인구 이동량이 55.8% 줄어 가

장 큰 감소세를 기록했다. 25~64세 인구는 28.1%, 65세 이상 인구는 26.2% 감소해 세대별 이동량 변화율이 달랐다. 3차 유행 시기의 주중 성별 이동량 변화(25세 이상)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2월 대비 여성의 경우 36.7%, 남성은 28.8%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육아 부담이 많이 커지고 대면 일자리가 줄면서 여성 이동량이 줄어 들었다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서울 시내를 오가는 직장인들의 평균 출근시간은 53분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서울로 출근할 때에는 평균 44.7분,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할 때에는 72분이 소요됐다.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이 평균 30분 정도 더 걸리는 셈이다.

전체 출근·등교 이동량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52.3%로 여성(47.7%)보다 많았다.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남성 평균 출근과 등교 소요시간이 여성보다 길었다. 직선거리 기준으로 평균 출근·등교 거리가 비슷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걸리는 시간은 달랐다. 예컨대 강남구 역삼2동과 서대문구 홍은2동 거주자의 평균 출근·등교 거리는 6.6km로 같지만 출근·등교에 걸리는 시간은 각각 40분과 53분으로 나타났다. 홍인석 기자 mystic@



김부겸 총리 추석 물가 점검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추석 물가 점검을 위해 서울 도봉구 창동 하나로마트를 찾아 판매 직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화물차 4대 ‘고속도로 자율 군집주행’ 성공

국토부·현대차 등 13개 기관 협력  
80km 구간 합류·유지·이탈 시연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4대가 나란히 달리는 자율협력 군집주행이 처음 실제 도로에서 선보였다.

국토교통부는 9일 자율협력주행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기술개발 최종 성과발표회를 하고 영동선, 중부내륙선 등 약 80km 구간에서 화물차 4대의 현장 시연을 진행했다.

화물차 군집주행은 차량과 차량 간, 차량과 인프라 간 무선통신을 활용, 차량·도로환경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 후행 차량이 일정 간격을 두고 선행 차량을 자동으로 추종하며 하나의 차량처럼 운행하는 기술을

말한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98억5000만 원을 투입해 한국도로공사, 국민대,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아주대 등 13개 기관과 함께 관련 기술을 개발했다.

이날 약 80km 구간(영동선 덕평IC·원주IC, 중부내륙선 서여주휴게소·여주JC)에서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운영서비스를 통해 각각의 차량이 군집 대열에 합류, 유지, 이탈하는 전체 과정을 시연해 군집주행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향후 상용화되면 운전자의 피로도가 감소하고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공기 저항이 감소해 약 4~8%의 연비 개선으로 물류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고소득자 실효세율, 일반인의 3~7배…稅부담 편중”

한경연 ‘文정부 부자증세’ 비판

최근 부자증세 정책으로 고소득자에게 세 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소득세 세 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위 ‘핀셋 증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조세 저항이 달한 고소득층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2차례 인상(40%→42%→45%)했다.

그 결과 올해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소

득세 최고세율 35.9%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고소득자(과세표준 5억 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의 3~7배에 달했고 고소득자의 소득과 비교하면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았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4.9%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5.3%)의 6.6배이다.

종합소득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16.1%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세액의 36.5%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소득은 면세자가 많아 고소득자가 1.5%의 소득 비율로 8.8%의 높은 세액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최고세율(45%, 10억 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4.5%), 국민연금보험료(4.5%), 건강보험료(3.43%), 고용보험료(0.8%)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내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이 넘게 돼 고소득자의 세 부담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이제는 부자증세에 집착하지 말고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원칙과 세 부담, 더 나아가 재정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지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의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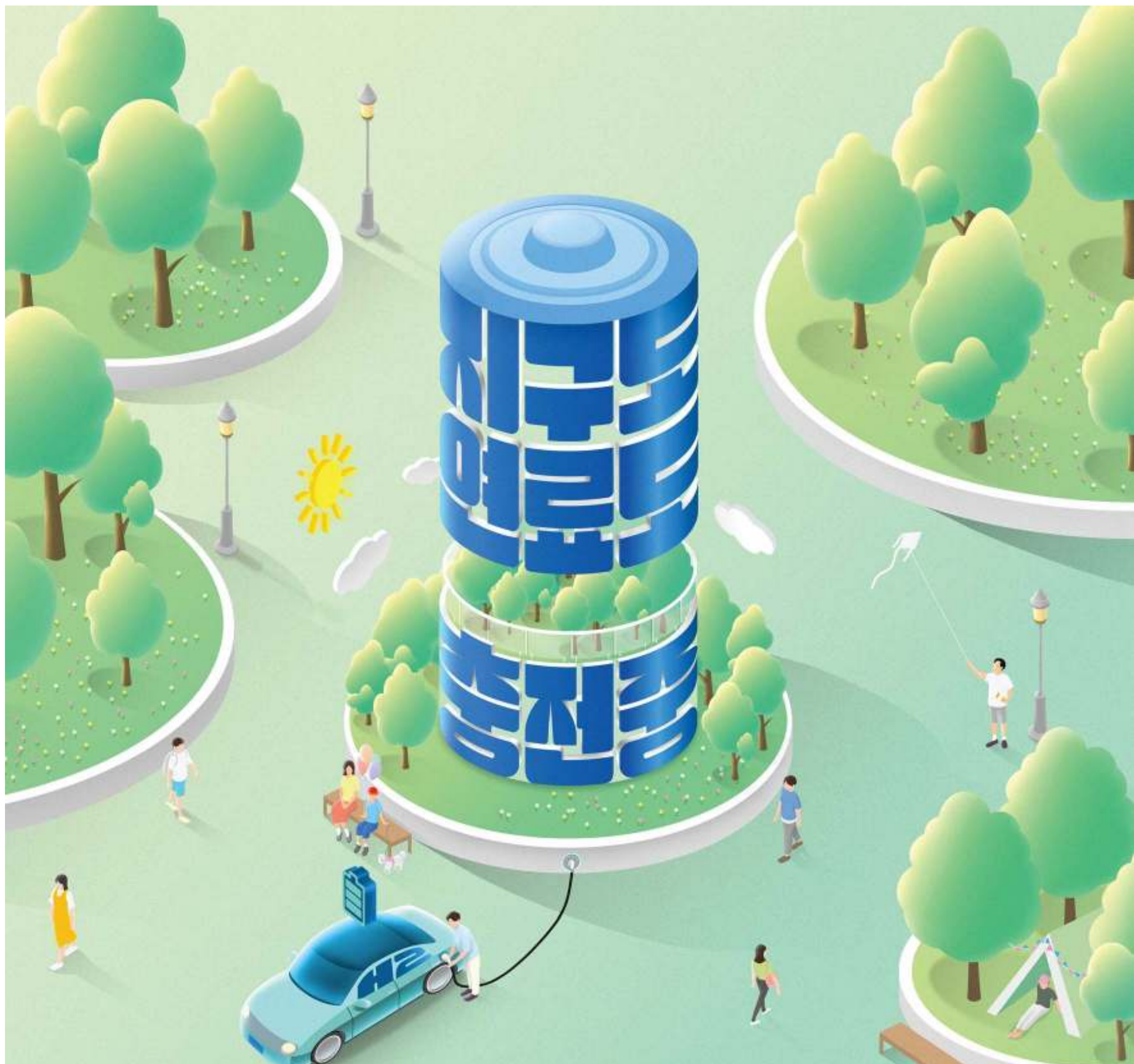
##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44.3조 공급 ‘역대 최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올해 1~8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44조3000억 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증가한 금액이며 1~8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이다. 무보는 “올해 7월 말 기준 중소·중견기업 수출이 5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한 무역보험 지원이 중소·중견기업 수출 호조세에 힘을 실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무역보험으로는 신한은행 등 5개 시중은행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유동성을 공동지원하는 포괄매입보증을 꼽을 수 있다. 포괄매입보증은 모든 거래처와

의 수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보증서다. 무보는 이달부터 기업별 포괄매입보증 최대 지원 한도를 기존 25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상향해 수출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

스마트폰만으로 신청 즉시 가입할 수 있는 무서류·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보증’ 지원도 무보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다이렉트 보험·보증은 정보망에서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무보가 직접 활용해 신청부터 가입까지 모든 과정을 즉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다이렉트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수출신고 직후 원스톱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지구도 연료도 충전되는 세상

전기차배터리와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일이  
결국 지구를 충전하는 일이 될 테니까

SK가 ESG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ESG로 세상. 행복하도록



오전엔  
김웅

“바빠서 기억 안 나”…

오후엔  
윤석열

“날 국회로 불러주시라”

‘尹 고발사주’ 의혹만 커져  
金, 고발장 작성 부인 외엔 모르쇠  
尹 “시나리오 뻔해, 내가 무서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이 커지자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전달자로 알려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모르쇠로 일관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지 않자 캠프 차원에서 대책 마련도 계획했다. 대검찰청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공작을 하려면 잘 준비해서 제대로 하라”며 “국민께서는 진행 중인 내용을 꼼꼼하게 잘 보고 다시는 이런 정치공작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말했다.

최근 자신을 둘러싼 여당의 공격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 갔다. 여권에선 윤 후보의 의혹과 관련해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에 윤 후보는 “늘 하는 시나리오가 뻔하다”며 “제가 그렇게 무서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를 국회로 불러 주시라. 당당하게 저도 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오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의혹 해명 기자회견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직접 대응에 나선 배경은 이날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 의원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당 지도부도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되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모 매체를 통해 보도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며 “일각에서 제가 정치공작에 가담했다는 루머를 퍼뜨리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해명은 없이 고발장과 관련해 모른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그는 “당시 1년 전이고 선거 운동하느라고 바쁘는데 보고 자료가 100페이지를 넘는 걸 언제 검토해서 넘겨주겠느냐”며 “본건 고발장 등

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도 대권 주자를 향한 네거티브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팀을 만들겠다고는 했지만, 이번 사안 자체에 대한 대응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대표가 사안에 따라 즉각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며 “이걸 좀 전담할 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볼리 나서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윤 후보는 야권에서 홍준표 후보의 추격이 이어지는 상황에 의혹이 커지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직접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캠프에서도 정치공작진상규명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원로 법조인과 언론인, 정치인을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해당 내용을 제보한 인물을 공익신고자로 확인했다. 대검찰청은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준상 기자 jooon@

## 언론중재법 보완 논의 첫날 손 잡았지만… ‘빈손’

8인 협의체 첫 대면, 입장차 확인  
與 “27일까지 처리”野 “합의 우선”  
與,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추진  
진실 알려도 처벌 가능해 과잉 비판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보완 작업이 시작됐다. 8일 여야 협의체가 가동된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보완책으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추진을 밝혔다.

여야협의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기 2명의 의원과 2명의 교수진이 참여해 개정안을 다듬는 기구로, 이날 국회에서 상건례를 열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상 27일 본회의 의결을 부각시켰고,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합의를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법안 처리를 양당이 합의한 만큼 국민에게 약속 드린 26일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비판을 피하려 한 달을 미루고 소를 했다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진정성 있게 해야 한다”고 짚었다. 협의체 구성원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새 규칙의 필요성은 동의했으면 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강행처리를 경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협의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단조가 된 위자료 산정에 대해 법원의



8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건례 겸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악수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추진을 밝혔다. 이는 언론의 자유 증진을 위해 제기된 해묵은 과제로, 개정안을 주도해 온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심의 과정에서 형법 개정 동시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307조 1항에 따른 것으로 허위가 아닌 사실 적시라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언론의 자유 문제뿐 아니라 과거 ‘미투 사태’ 때 공익신고 위축 우려가 제기되며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이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안은 현재 박주민·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이 계류돼 있다. 박·김 의원의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박 의원은 나아가 모욕죄도 삭제하고 명예훼손을 당사자가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최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을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안을 내놨다. 사실 인용이더라도 사생활이라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한 만큼 죄목 자체는 남겨 두면서 언론의 자유는 넓힌다는 취지이다.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완전 폐지인지, 적용 범위를 좁히는 방향인지는 미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윤 원내대표는 1인 미디어 규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뉴스 배열 개선 등 언론개혁 과제 추진을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김용민 의원은 여야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지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 이낙연, 의원직 사퇴 “정권 재창출 다 걸어”

절치부심한 이낙연(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8일 국회의원직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참패한 이 후보는 이번 주말 1차 슈퍼위크와 25일 호남권 경선에서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각오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광주에서 “의원직을 버리고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제가 진 빚을 갚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호남권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며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충청권에서 더블스코어로 이재명 후보에게 뒤처진 이낙연 후보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등 전략을 재검토한 데 이어 절치부심해 호남 경선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당 경선을 좌우할 1차 국민선거인단 64 만명 가운데 호남지역이 20만 명 가량이고, 25일과 26일 치러질 호남 순회 경선 선거인단도 20만 명가량으로 호남표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호남 출신인 이낙연 후보는 대의원과 관리당원이 몰려 있는 호남 표심에 승부수를 걸어야 하는 형국이다. 초반 승기를 잡아 대세를 굳히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견제해 의원직 사퇴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다.

이를 두고 한 대선 캠프 관계자는 “정세균 후보 등과 단일화로 모멘텀을 갖기엔 양 후보 간 이해관계가 맞지 않다”며 “이번 사퇴 선언은 호남 표심에 강력히 어필하기 위한 것이나 악수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로도 읽힌다”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윤호중 “윤석열 검찰 수사권 사유화, 2단계 검찰 개혁 입법”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  
“국힘, 관련자 전원 출당해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이른바 ‘사주 고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이에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며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지행했다.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힘도 관련

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한다”며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개인적 보복을 일삼는 수구세력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 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경제사회

부흥 전략’도 제시했다. 특히 △경제 대(大)화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의 도약이 전략의 세 축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600조 원을 넘긴 내년 예산에 대해 “위드코로나 예산, 손실보상·피해지원 예산, 포용적 복지 예산 등 ‘적당히보다 과감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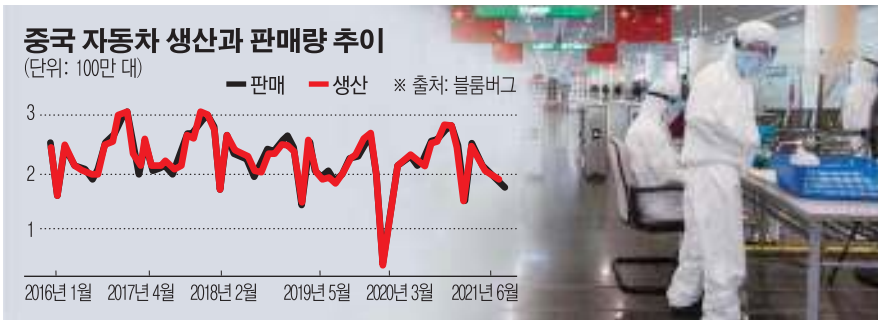
# ‘잔인한 8월’ 소비 꺾인 글로벌 경제

中 4대 도시 주택판매, 16% 감소  
자동차 22%↓ ...작년 3월後 최대  
美 소비자심리지수 10년來 최저

8월 중국 소비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소비도 7월에 정점을 찍고 8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딛고 세계 경제회복을 견인하던 ‘소비’가 큰 폭으로 꺾이고 있다. 소비를 끌어올릴 ‘뿔감’도 충분하지 않아 향후 경제성장 전망에 경고음이 커졌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월 중국의 주택과 자동차 구입이 대폭 줄었다. 블룸버그 분석 결과, 8월 중국 4개 대도시에서 주택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는 22%나 급감, 작년 3월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 강화가 소비 급감의 주된 배경이 됐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중국은 8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작년 코로나19 통제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당국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이동 제한과 격리, 대규모 검사 등 고강도 조치를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 ‘셧다운’으로 수요 감소 타격이 더 컸다. 여기에 반도체 공급 대란까지 맞물리면서 생산도 차질을 빚었다. 기업의 고용에 이어 소비까지 줄줄이 감소하는 연쇄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자동차가 매월 소매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달해 중국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8월 소매판매도 대폭 둔화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넷웨스트마켓의 류페이전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 봉쇄 조치로 서비스 부문이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안 그래도 불균형한 회복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델타 확산으로 이동과 소비가 줄면서 8월 국가통계국 공식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작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다. 전망도 밝지 않다. 중국 정부가 주택 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부동산 시장의 판매 급감으로 관련 업계 수요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하반기 전망이 더 어둡다”고 내다봤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달한다.

올 상반기 연율 6%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미국의 경제회복 궤도가 안정적으로 회

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8월 들어 빛나갔다. 올해 초 전문가들은 서비스 지출 증가로 미국 경제회복이 하반기에 더 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신 접종이 늘면서 고용이 증가하고 사무실 복귀로 지역 경제도 활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해왔다. 그러나 델타 변이가 강타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이동 제한이 부활하고 각종 행사 취소, 일터 복귀 지연 등이 이어지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불확실성이 커진 기업들은 고용을 줄였고 소비도 꺾였다.

8월 비농업 고용은 23만5000명 증가에 그쳐 6월과 7월의 각각 약 100만 명 증가 대비 대폭 감소했다. 7월 중순 하와이 여행객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전 수준에 근접했으나 이동 제한이 강화되면서 8월 말, 2019년 대비 34% 낮은 수준까지 감소했다. 영화관 매출도 7월 고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 8월 말 절반 이상 줄었다. 미시간 소비자심리지수도 8월에 10년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다.

김서영 기자 0jung2@

## 아프리카 기니 쿠데타에 철광석·알루미늄값 흔들

“구속된 콩데 대통령 석방 촉구”  
최대 소비국 中, 이례적 발표

서부 아프리카 기니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에 철광석과 알루미늄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격이 치솟자 중국도 이례적으로 군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기니에서 벌어진 군사 쿠데타에 반대한다”며 “구속된 알파 콩데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든 이해 당사자가 자제하고 기니의 근본적인 이익을 염두에 두고 대화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간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벌어진 정권 전복 사태에 ‘내정 간섭’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반응이다.

중국이 이 같은 반응을 내놓은 것은 자원 개발과 관련이 깊다. 기니는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 주산지이며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소비국인 중국의 최대 공급원이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보크사이트 수입량 중 60%가 기니산이다. 기니 현지에는 중국 국영·민간 기업 14곳이 알루미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주 들어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알루미늄 선물 가격은 2011년 5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가격 급등 원인이 기니 쿠데타에 있다고 설명한다.

알루미늄 외에 철광석도 중국과 기니를 잇는 주요 자원이다. 기니는 세계 최대 철광석 미개발 매장지인 시만두 산맥이 위치한 곳으로, 중국은 100억 톤 이상의 철광석이 매장된 이곳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중국이 콩데 대통령의 복귀와 정세 안정을 희망하는 이유다.

중국의 지난달 수입이 급증했다는 소식과 기니 쿠데타가 겹쳐 중국 북부 지역으로의 철광석 수입 가격은 이날 전일 대비 4.2% 급등한 톤당 137.97달러에 거래됐다.

군부에 의해 억류 중인 콩데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개헌을 통해 3선 연임에 성공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도 각별하다. 그간 여러 차례 회담을 통해 친분을 이어온 두 정상은 지난해 콩데 대통령 3선 확정 후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 중국은 기니의 주요 자금 대출처로, 2019년 기준 기니의 대중국 차입액은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한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에서 빌린 돈보다 많은 규모다.

닛케이는 이번 쿠데타로 투자금 회수에 지장이 생기면 자칫 시 주석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코로나 청구서’ 내민 영국 40년 만에 세금 대폭 인상

국민보험 분담비율 1.25%P↑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다량의 현금을 풀었던 영국이 청구서를 내밀었다. 40년 만에 세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과거 공약과 상반된 행보를 보이면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근로자와 고용주가 내는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을 각각 1.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우선은 기존 국민보험 인상으로 시작해 2023년부터는 사회복지 부담금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과세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세금 인상을 통해 향후 3년간 360억 파운드(약 57조 원) 가까이 돈을 모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자금은 의료·사회복지 시스템에 투입될 예정으로, 법제화를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하원에 출석해 “자금 조달 방법에 있어 어렵지만,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코로나19 지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은 왜 소득세를 올리지 않느냐고 묻는다”며 “소득세는 기업이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담은 개인에게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우리의 새로운 부담금은 개인과 기업 간 비용을 나눌 것이고 모든 사람이 자신이 벌어들이는 만큼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더 많이 버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7일(현지시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런던/로이터연하스

사람이 더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총리는 “이번 조세 정책이 단순히 풀었던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변이 코로나 확산 속에 의료체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와 함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6개월간 54억 파운드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세를 역시 1.2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영국 재정연구소(IFS)는 이번 인상이 40년 만의 최대폭이라고 설명했다.

존슨 총리가 총선 당시 공약에서 국민보험 개인 부담금 등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영국 내 반발도 크다. 제이콥 리스 모그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는 “존슨 총리의 세금정책 유언이 보수당의 표를 앗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간 가디언은 “리즈 트러스 국제통상장관과 카시 파르팅 경제장관, 로버트 베를랜드 법무장관 등 각료들도 정부 계획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지진·홍수 이중재해 시달리는 멕시코

멕시코가 지진과 홍수 등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다. 7일(현지시간) 멕시코 남서부 아카풀코 인근에서 규모 7.0 강진이 발생해 깨진 유리 등 건물 파편이 한 매장 앞에 어지럽게 놓여 있다(왼쪽). 중부 이달고주 툴라에서는 이날 한 병원이 홍수로 전락 급급이 중단돼 17명이 사망한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이 병원의 다른 환자들을 구출하고 있다. 아카풀코·툴라/EPA·AFP연합뉴스

## 애플, 14일 ‘아이폰 13’ 화상공개

코로나 여파... ‘애플워치 7·에어팟 3’도 선보일지 주목

애플이 14일(현지시간) 특별 행사를 열고 신형 ‘아이폰 13’을 공개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화상으로만 행사를 치르게 됐다.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애플은 7일 미디어에 ‘캘리포니아 스트리밍(California streaming)’이란 제목의 초청장을 보냈다. 초대장에는 14일 오전 10시 캘리포니아 쿠파티노 본사 애플파크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적혀 있다. 행사는 애플 웹사이트를 통해 생중계된다.

CNBC는 애플이 자리에서 신작 아이폰인 ‘아이폰 13’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 아이폰 13 미니 등 제품군이 공개될 전망이다.

아이폰 13은 전작과 비슷하면서도 작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디스플레이 상단 중앙에 위치했던 검은 직사각형 형태의 ‘노치’가 작아지거나 없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카메라와 배터리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고 위성 통신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새로운 ‘애플워치 7’과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 3’ 공개에도 무게가 실린다. CNBC는 애플워치는 매년 신제품이 나왔고 에어팟은 신제품 출시가 2019년이 마지막이어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올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웨어러블 기기인 애플워치 7은 전작보다 각진 디자인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행사 종료 후 아이폰 13에 이어 신형 애플워치와 에어팟도 출시될 수 있지만 최근 애플워치 7의 생산 차질로 출시가



애플이 7일(현지시간) 미디어에 보낸 초청장.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아이패드 미니 6, 애플 자체 개발 M1 칩이 들어간 대형 아이맥, 저렴해진 애플 디스플레이 공개 여부도 관련 포인트다.

애플은 2012년 이후 줄곧 9월에 신형 아이폰을 발표했다. 그러나 작년 코로나19 여파로 10월에 아이폰 12를 발표했다. 9월에는 애플워치 시리즈 6, 애플워치 SE, 신형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을 공개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 금감원 곱지 않은 시선...P2P 기관 투자 ‘빨간불’

## 금감원, 금융위에 기관 P2P투자 관련 법령 유권 해석 의뢰

관련 법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 3항

“연계투자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금감원 입장 (빨간 글씨 부분) “업권법으로 봐야 하는지 모호”

“업권법으로 볼 경우 여신 심사 주제, 적립해야 할 총당금의 규모, 건전성 규제 등 이슈 발생



온투법, 기관 투자 허용했지만  
금융사 의무사항 불명확 지적  
P2P “업계 적자라 투자 시급”  
당국 “사고 잦아 보수적 접근”

28개사 온라인투자연계(P2P) 업체들이 제도권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경영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의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투자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여러 금융사고를 내온 P2P금융의 특성상 금융기관의 투자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제35조 3항에 대해 유권 해

석을 의뢰했다. 해당 법은 ‘제1항에 따라 연계투자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 투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령 저축은행이 P2P업체의 상품에 투자를 할 경우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이 저축은행법이 되면 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에 따라 해당 투자에 대해 여신 심사를 해야 한다. 또 총당금을 쌓고, 건전성 규제 등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권법 안에 무수히 많은 의무 사항이 있는데 그중 어떤 걸 지켜야 하는지 (온투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며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금융사가 P2P 상품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우회 대출 소지다. 온투법에서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자는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간주한다. 즉 여신금융기관이 P2P 상품에 투자하는 행위는 ‘투자’가 아닌 ‘대출’이 된다. 이럴 경우 우회 대출 소지가 불거진다. 금융기관이 각종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P2P업체를 끼고 차주에게 대출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여신금융기관이 P2P업체를 제2의 대출모집중개인으로 여길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온투법이 통과되면서 업계에서 가장 주목했던 것은 기관 투자다. 온투법으로 모집금액의 40% 이내에서 기관이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P2P업계는 양적 성장을 기대했다. 온투법으로 일반 개인투자자가 업권 전체에 3000만 원 이하로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이

위축됐지만, 큰 손인 기관 투자자의 투자가 허용된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유권 해석과 관련해 “P2P에 대해 처음에는 엄격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결러내면서 트랙레코드(실적)가 쌓이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P2P 투자가 현 재료써는 어려울 가능성이 큰 것이다.

온투법으로 기관 투자가 활성화돼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던 업계는 실망감이 크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금 흑자를 보고 있는 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다 적자를 보고 있다”며 “기관 투자가 막히면 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자금을 유지 못 하면 중신용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국에서) 무조건 (기관 투자를) 막기보다 (부작용을 막도록) 규제를 세부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수빈 기자 bean@

빗썸·코인원-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업비트-케이뱅크

## 4대 거래소 모두 실명계좌 받았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 코빗이 나란히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이들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 전까지 사업자 신고를 위한 가장 큰 문턱을 넘었다. 실명계좌 발급이 체결된 만큼 세 거래소는 조만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최종 신고서를 접수할 방침이다.〈본지 8일자 1·5면 참고〉

8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에 위험평가 심사를 마치고 실명계좌 계약 체결과 확인서 발급을 마쳤다. 이날 신한은행도 코빗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발급했다. 다만 코빗은 오는 9월 24일까지 신한은행과의 계약 연장 결정이 남아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 등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선 ISMS 인증은 물론 은행과의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아야 한다.

트래블룰과 관련해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이 장기간 논의한 결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세탁위험을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고 수리 후 고객신원확인(KYC) 및 지급주소 확인 절차를 거친 거래소 고객은 원화마켓을 비롯한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고 접수 이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작업에 빗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코빗을 더해 3개 거래소는 트래블룰 합작법인을 통한 정보공유 체계와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 실명계좌 확보한 세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FIU 신고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후 신고 접수는 규정과 절차에 맞추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케이뱅크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두 신고서를 무난히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형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 계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은 원화마켓을 제거한 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곽진산 기자 jinsan@

## 카뱅, 신용대출·마통 2000만원씩 한도 축소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각각 2000만 원씩 줄인다.

카카오뱅크는 8일부터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를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추고, 최대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봉이 5000만 원보다 낮은 연봉 수준만큼 대출받을 수 있고, 연봉이 5000만 원을 넘더라도 최대 대출금액은 5000만 원이다.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기존 한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줄어든다.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고신용 대출 상품의 한도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저신용 고객을 위한 상품인 중신용대출, 중신용플러스대출 상품의 한도는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중신용대출 한도는 1억 원, 좀 더 낮은 신용점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중신용플러스대출 한도는 5000만 원이다.

앞서 시중은행도 대출 조이기에 들어섰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은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100% 수준으로 낮췄다. 또 신한·우리은행은 올초부터,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최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축소했다.   
문수빈 기자 bean@

농협 60주년  
금융의 모든 순간에  
당신과 함께 합니다

NH농협금융

“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수익은 흔들리지 않도록  
위험을 사전에 차단  
”

분산투자의 힘으로  
시장을 이기는 EMP

ETF Managed Portfolio

전체 포트폴리오 중 절반 이상을 여러 종류의 ETF에 분산 투자합니다  
시장이 불확실해질수록 EMP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확실해집니다

투자, 문화가 된다

NH투자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3828(2021.08.10~2022.08.09) ※[공통]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금융투자상품은 예금지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공통]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로보]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로보]NH로보EMP자산배분의 투자자문보수 중 기본보수(연0.5%)는 분기단위 후취하여 만기 혹은 해지시 후취장수 합니다. ※[펀드]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접)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펀드]증권거래비용,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랩]이 랩 계약의 수수료는 계약별로 상이합니다. \*NH클럽버스, NH글로벌인컴(연1.0%+성과보수 분기 후취)/NH글로벌채권(연0.8%+성과보수 분기 후취)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반도체 ‘치킨게임’ 재점화… 시험대 오른 삼성

인텔, 110兆 투입 유럽 2곳 증설  
TSMC, 가오슝 공장 설립 검토  
삼성, 美 파운드리 2공장 초읽기  
공급과잉에 가격 하락 가능성

인텔과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연이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반도체 업계의 ‘치킨게임’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00년대 치킨게임에서 살아남은 삼성전자는 또다시 경쟁자들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으며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치킨게임은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 이론이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팻 겔싱어 인텔 CEO(최고경영자)는 독일 뮌헨에서 열린 자동차 전시회 ‘IAA 2021’에서 “인텔이 유럽 내 반도체 신공장 2곳을 계획 중이며 향후 공장을 더 확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공장



위치는 아일랜드로 선정됐으며 이곳에서 자동차용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이다. 투자 금액은 950억 달러(약 110조 원)로 추산된다. 인텔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과 향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인텔은 올해 3월 200억 달러(약 23조 원)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새

로운 파운드리 공장 2곳을 신설하고, 35억 달러(약 4조 원)를 투자해 뉴멕시코주 공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1위인 대만 TSMC도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타이완포커스 등 대만 현지 언론은 TSMC가 대만 가오슝에 7nm(1나노미터=10억분의 1m) 기반의 공장을 건

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르면 2023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가 진행되면 사물인터넷(IoT), 자동차의 반도체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SMC는 최근 첨단 반도체 공정 생산 능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5나노 공정을 타이난 공장에서 가동했으며,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는 3나노 공장도 타이난에 짓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는 120억 달러를 투자해 5나노 공장 건설에 나섰다. 이밖에 독일과 일본, 미국 추가 지역 투자도 검토 중이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미국에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오스틴 공장과 가까운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시스템반도체는 2030년까지 171조 원을 투자해 글로벌 1위 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메모리반도체는 선단공정을 조기 개발해 절대우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앞다퉈 증설을 추진하면서 반도체 치킨게임이 재연 가능

성에 무게가 실린다. 공장 증설에만 수년이 걸려 단기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장 완공 후 공급 과잉으로 반도체 업계의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급등한 반도체 가격이 올 하반기 말이나 내년 초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라 나오며 반도체 회사들의 수익성 이슈도 대두하고 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치킨게임을 이미 두 차례 겪으며 1990년대 20여 곳에 달했던 D램 업체가 2005년 이후에는 5개로 재편됐다.

시장조사기관 포레스터의 글렌 오도넬 연구원은 CNBC와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 미국, 대만, EU, 중국은 모두 테크 올림픽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탐내고 있다”라면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약 2년이 걸리고 1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겠지만,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을 빨리 해결하지도 않을 것이고, 금메달을 보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LG디스플레이 ‘투명 OLED’ 유럽으로 영토 확장

獨 ‘IAA 모빌리티 2021’서  
철도 특화·실내용 제품 선보  
中·日 이어 신시장 공략 속도

투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앞세운 LG디스플레이의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8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LG디스플레이는 독일 현지 사이니지 업체 가우지(Gauzy)와 협업해 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모터쇼 ‘IAA 모빌리티 2021’에서 55인치 투명 OLED 제품을 전시한다.

이번 행사에서 LG디스플레이는 철도 전용 제품과 실내용 제품을 모두 선보인다. 철도 특화 투명 OLED 제품엔 투명도 40%, 특수 강화유리가 적용됐다. 기존 패널 대비 충격과 진동에 강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선로를 달리는 열



IAA 모빌리티 2021에 전시된 LG디스플레이 투명 OLED 제품. 사진제공 LG디스플레이

차에 적합하다.

탑승자는 투명 OLED를 통해 외부 풍경을 보는 동시에 각종 운행 정보, 광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등을 즐길 수 있다.

실내용 투명 OLED는 스마트홈, 업소용 사이니지에 주로 적용된다.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디스플레이 뒤편의 상황도 볼 수 있어 식당이나 상점 등의 공간에서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고객 접점을 확대해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LG디스플레이는 2019년 투명 OLED 제품 상용화 이후,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와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 등 다양한 곳에 참가해 제품을 세계적 기업에 선보이고 있다.

회사 측은 투명 OLED 제품이 디스플레이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대형 투명 OLED를 양산할 수 있는 업체는 LG디스플레이가 유일하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중국 베이징과 선전 지하철 객실 차량 내 윈도용 투명 OLED를 세계 최초로 공급하며 시장을 개척했고, 올해 4월에는 올해엔 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JR 동일본)와도 계약을 맺었다. 일본 아키타 현에서 아오모리 현까지 운행하는 관광 열차에 LG디스플레이 투명 OLED 제품을 시범 탑재하는 내용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삼성전자 모델이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프리미엄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김치플러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 주방에 맞춰 ‘빌트인 룩’ 구현 삼성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4도어 출시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4도어 신제품을 8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공사 없이 주방 가구에 딱 맞춰 ‘빌트인 룩’을 구현해 주는 ‘키친핏’ 디자인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빌트인 룩을 구현하면서도 넉넉한 보관 공간을 원했던 소비자들은 비스포크 냉장고·김치냉장고 2개의 키친핏 제품 조합으로 최대 1035리터의 대용량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번 신제품에는 다양한 식재료를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비스포크 인사이드’ 솔루션을

한층 강화했다. 와인(15도), 음료(영하 1도), 간편식(영하 20도) 등 용도에 따라 적정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제품 하칸의 변온실에는 ‘멀티 트레이’를 추가해 식재료를 더욱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신제품은 키친핏(420리터)과 프리스탠딩(490·586리터) 타입으로 출시된다. 비스포크 냉장고와 동일하게 총 22가지 종류의 패널이 제공되고, 360개 색상으로 구성된 ‘프리즘 컬러’에서 원하는 색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제품의 출고가는 기능과 도어 패널 사양에 따라 키친핏 타입이 254만9000~364만9000원, 프리스탠딩 타입이 224만9000~599만9000원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 LX세미콘-MS, 3D 센싱 솔루션 개발 ‘맞손’

휴 IoT·車 등 솔루션 적용 추진

LX세미콘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3D 센싱 솔루션을 개발한다.

LX세미콘은 최근 MS의 3D ToF(비행 시간 거리측정·time-of-flight) 센싱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ToF는 피사체를 향해 보낸 광원이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해 거리를 계산하는 기술로 카메라와 결합하면 사

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최근 3D ToF 센싱 기술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등의 기기에서 공간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모바일기기, 자동차,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MS는 최고 수준의 ToF 센싱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MS의 3차원 센싱 기술은 게임 분야의 ‘키넥트(Kinect)’, 혼합현실 분야의 ‘홀로렌즈(Hololens)’와

‘애저 키넥트(Azure Kinect)’ 등과 같은 MS 제품에 다양하게 적용되며 우수성을 입증했다. MS는 생태계를 구축해 제조, 로봇,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파트너사에 제공하고 있다.

LX세미콘은 휴 IoT(사물인터넷), 물류, 자동차 등 신규 분야에 적용할 센싱 솔루션을 모색해 왔으며, 우선적으로 MS의 3D ToF 센싱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LG전자는 자동차에 탑재되는 다양한 전자장치를 비롯해 차량용 네트워크, 자율주행 등 폭넓은 영역에서 개발한 선행기술을 전장 사업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에 앞서 SW 공인시험소에서 테스트해 품질과 기능 안전을 점검할 수 있다. 노우리 기자 we1228@

## LG, 자동차 SW 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

LG전자SW 공인시험소는 최근 국가기술 표준원산하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기능 안전성이 국제표준규격을 얼마나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자격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획득한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ISO 26262-6) 분야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서 안전성이 높은 부품을 요구하

## 삼성, 마이크로 SD카드 읽기 속도 1.6배 ‘UP’

프로·에보 플러스 신제품 출시

삼성전자는 성능과 안정성을 한층 강화한 마이크로 SD카드 신제품 ‘프로 플러스(PRO PLUS)’와 ‘에보 플러스(EVO PLUS)’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PRO PLUS’와 ‘EVO PLUS’는 2015년 출시 이후 마이크로 SD카드 시장에서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제품으로 주로 스마트폰, 태블릿, 액션캠 등 모바일 기기의 확장형 스토리지로 활용된다.

‘PRO Plus’는 읽기와 쓰기 속도가 각각 최대 160MB/s, 120MB/s로 이전 세대 대비 약 1.6배, 1.3배 빨라졌으며,

‘EVO Plus’ 역시 이전 세대 대비 약 1.3배 빨라진 최대 130MB/s의 읽기 속도를 제공한다.

두 제품군 모두 방수, 내열, 엑스레이, 자기장, 낙하, 마모 등 6가지의 외부 충격에 대비한 특수 보호 기능이 적용돼 혹독한 사용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마이크로 SD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PRO Plus’ 마이크로 SD카드는 128GB·256GB·512GB 등 세 가지 용량, ‘EVO Plus’ 마이크로 SD카드는 64GB·128GB·256GB·512GB 등 네 가지 용량으로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

권태성 기자 tskwon@

# 디즈니플러스 11월 12일 온다… 국내 OTT업계 초긴장

월 9900원 한 계정에 7명 사용  
마블·스타워즈 등 콘텐츠 막강  
화질 ‘4K HDR’ 지원 가능성  
웨이브·티빙 등 IP 라인업 강화

디즈니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가 11월 12일 한국에 상륙한다. 마블·디즈니 등 막강한 콘텐츠를 앞세운 데다 가입 조건도 파격적이어서 국내 OTT 업계의 긴장이 고조하는 모습이다.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는 디즈니플러스를 11월 12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디즈니가 국내에서 선보일 브랜드는 ‘스타’다. 성인과 청소년, 가족 등 폭넓은 시청자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일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콘텐츠 목록을 보면 디즈니, 픽사, 마

| 주요 OTT 사업자별 이용료 및 조건 비교 ※ 출처: 각 사 |          |             |       |          |
|-----------------------------------|----------|-------------|-------|----------|
|                                   | 요금제      | 베이직         | 스탠다드  | 프리미엄     |
| 넷플릭스                              | 월간 요금(원) | 9500        | 12000 | 14500    |
|                                   | 동시접속(명)  | 1           | 2     | 4        |
|                                   | 화질       | SD          | FHD   | UHD      |
| 웨이브                               | 월간 요금(원) | 7900        | 10900 | 13900    |
|                                   | 동시접속(명)  | 1           | 2     | 4        |
|                                   | 화질       | HD          | FHD   | 최상위 화질   |
| 티빙                                | 월간 요금(원) | 7900        | 10900 | 13900    |
|                                   | 동시접속(명)  | 1           | 2     | 4        |
|                                   | 화질       | 720p        | 1080p | 1080p+4K |
| 디즈니플러스                            | 월간 요금(원) | 9900        |       |          |
|                                   | 동시접속(명)  | 4 (최대 7)    |       |          |
|                                   | 화질       | 4K HDR (예상) |       |          |

블, 스타워즈,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디즈니플러스와 미국 ABC 20세기 텔레비전, 20세기 스튜디오, 서치라이트 픽처스 등의 영화·TV 프로그램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로키’, ‘완다비전’, ‘팔콘과 윈터솔저’, ‘스타워즈 시리즈 만달로리안’, ‘하이스쿨 뮤지컬’ 등 디즈니플러스의 오리지널 콘텐츠와 독점으로 제공할 국내 제작 콘텐츠도 준비 중이다.

조건도 파격적이다. 디즈니플러스는 월 9900원 또는 연간 9만9000원의 단일 요금제를 도입한다. 연간 요금제로 구독하면 월평균 8250원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셈이다.

회선에 따른 차이도 없다. 한 계정으로 최대 7명이 사용할 수 있되, 동시 접속자

는 4명으로 제한한다. 화질의 경우 확인이 필요하지만 앞서 서비스를 시작한 해외의 경우 비용 추가 없이 4K HDR 화질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OTT 산업계는 긴장하는 모양새다. 다양한 지식재산권(IP)을 바탕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디즈니플러스가 다른 OTT 서비스 대비 좋은 조건까지 내세웠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OTT 월간 순 이용자 수(MAU)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넷플릭스의 경우 월간 요금은 9500~1만4500원 수준이다. 요금제에 따라 화질도 SD부터 UHD까지 차이가 나고, 동시 접속자 수도 제한된다. 토종 OTT인 웨이브와 티빙도 7900~1만3900원 수준의 요금제에 따라 동시 접속자 수와 화질 등을 차등 제공하고 있다.

디즈니 상륙이 가시화한 가운데 국내 OTT 업체들도 대비에 나섰다. 콘텐츠 독점 공급으로 IP 라인업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진출로 활로도 모색하는 분위기다.

‘토종’ OTT인 웨이브는 해외 콘텐츠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다. 미국 HBO에 이어 미국 NBC 유니버설과 스트리밍 서비스 ‘피콕’ 오리지널 시리즈 등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티빙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수출하며 저변을 넓히고 있다. 티빙은 오리지널 콘텐츠 ‘유미의 세포들’이 유럽, 북미,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160여 개 국가에 서비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즈니플러스의 첫 번째 IPTV 파트너사로는 LG유플러스가 점쳐지고 있다.

전날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디즈니플러스 국내 론칭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막판 협상 중으로 잘 될 것”이란 의견을 밝힌 데다, 양사의 목표 시청자층이 부합하고 글로벌 회사와의 협업 성공 사례가 많은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어서다. 이다원 기자 leedw@

##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72곳 육성

중기부 ‘کم업 스타즈’ 선정… 비즈매칭·해외 진출 기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중기부와 2021년 کم업 조직위원회는 کم업 행사에 참여할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인 ‘کم업 스타즈(COMEUP STARS)’ 선정 결과를 8일 발표했다.

‘کم업 스타즈’는 글로벌 생태계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스타트업을 발굴 스타트업 간 교류, 글로벌 투자 비즈매칭,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کم업 조직위는 차기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한 ‘로켓리그’와 잠재력이 뛰어난 ‘루키리그’로 구분해 1개월 동안(7월 6일~8월 5일) 모집했다. ‘로켓리그’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넥스트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한 혁신 선두 스타트업 36개사를 한국벤처투자 추천을 통해 선정했다. ‘루키리그’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큰 누적 투자유치 5억 원 미만의 스타트업 36개사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특히 해외에서 신청한 36개국 161개사에서 7개국 16개사가 뽑혔다. 싱가포르(6개)가 가장 많고, 미국(3개), 이스라엘·태국(2개) 순이다.

사업경력을 보면 3~5년 창업기업이 28개사(38.9%)로 가장 많으며, 1~3년 초기 창업기업 20개사(27.8%) 순이고, 평균

연령은 3.4년이다.

100억 원 이상 투자유치에 성공한 바츠바이오테크, 와이낫미디어 등 9개사도 کم업 스타즈로 선정됐다. 평균 투자유치 금액은 47.5억 원이다.

‘루키리그’의 글로벌 이력서 작성 플랫폼 스타트업인 ‘레지’의 제이콥 자케 대표(미국)와 ‘로켓리그’에 선정된 에두테크 스타트업인 ‘태그하이브’의 아가르왈 판카즈 대표(인도)는 한국에서 창업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사례이다.

کم업 스타즈로 최종 선정된 72개사는 کم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کم업 스타즈’는 국내외 투자자 대상으로 کم업 행사 기간에 기업 소개(IR), 비즈매칭, 부스 전시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외 벤처캐피탈(VC) 비즈매칭에 먼저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선배 스타트업과 동료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도 마련된다.

한편 올해로 3회째를 맞는 ‘کم업 2021’은 코로나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오프라인 중심의 온·오프라인 병행한 행사다. 행사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행사 장소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다.

고종민 기자 kjm@

## SKT ‘T우주’ 순항… 일주일 만에 15만명 유치

타 통신사 가입 비중도 30%

먹거리·쇼핑 등 18곳과 제휴

SK텔레콤이 선보인 구독 상품 ‘T우주’가 출시 일주일 만에 15만 가입자를 유치하며 구독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전 연령대에서 고른 가입률을 보이는 가운데 타 통신사 가입자도 30%가량 끌어모으며 전 국민 구독 서비스로의 안착에 청신호를 켜고 있다.

SK텔레콤은 8월 31일 신규 론칭한 구독 서비스 T우주가 일주일 만에 가입자 15만을 돌파하며 순항 중이라고 8일 밝혔다.

SKT에 따르면 가입 채널별로 SKT 고객센터, Tworld, 11번가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이 70%,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가입은 30% 수준이다. 연령 분포는 20대가 약 19%, 30대 33%, 40대 29%, 50대 이상 19%로 전 연령대 고른 분포를 보인다. 온라인 소비 주력세대로 20~40대가 80% 이상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11번가와 T월드처럼 웹과 앱을 통한 셀프 가입 채널은 20~30대 비중이 60%를 웃돌아 비대면을 통한 MZ세대의 가입이 늘고 있어 고무적이라는 SKT의 분석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라고 목표를 밝혔듯 타 통신사 가입자의 비중도 현재 30% 수준이며 지속 증가하고 있어, 전 국민의 구독 라이프를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유통망 푸시에 의한 가입보다는 온라인



TV 광고 방영중인 ‘모두의 구독 유니버스, T우주’ 중 한 장면.

채널을 통한 자발적 가입이 많고, 실제 아마존 직구의 활용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18개 제휴처의 구독 상품들을 선택형으로 제공하는 ‘우주패스 all’ 상품을 살펴보면 판데믹 상황에서의 생활상을 반영하듯, ‘배달의 민족’, ‘파리바게뜨’, ‘스타벅스’, ‘이마트’ 등 먹거리와 쇼핑 서비스가 많은 고객의 관심을 받았다. 이외에도 ‘웨이브’, ‘폴로’ 등 콘텐츠형 구독 상품 가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우주패스’ 상품의 기본 혜택으로 제공되고 있는 11번가와 아마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11번가의 해외직구 카테고리 거래액은 아마존 글로벌스토어의 혜택이 제공되는 ‘우주패스’의 인기에 힘입어 론칭 후 일주일간 전월 동기

대비 3.5배 이상 커졌다.

SKT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와 시장의 기대에 힘입어 구독 제휴를 원하는 신규 제휴사들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달 내에 베스킨라빈스, 보틀웍스와 사운드집 등 새로운 제휴사도 여러 곳 합류할 예정이어서 디지털트류와 운동을 좋아하는 많은 고객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100여 개 제휴사와 추가 협의 중인 상황으로 고객들의 선택권은 더 확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SKT는 우주패스 구독 패키지 상품을 통해 스타트업 제휴사들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 화장품 회사인 ‘툰28’의 경우 제휴를 통해 홍보 채널 및 가입자 증대 측면에서 성장 모멘텀이 됐다는 평가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 과학기술 기반 치안서비스에 445억 투입

과기부 ‘폴리스랩 2.0’ 추진

도주차량 추격 시 경찰의 위치추적기가 발사되고, 범죄 현장에선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겹친 지문을 분리해 낸다. 온라인 증거물 훼손을 방지하는 포렌식 기술도 활성화된다. 이 모두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국내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서비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8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민과 경찰이 요구하는 치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인 ‘폴리스랩 2.0’을 2025년까지 445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폴리스랩 2.0 사업은 치안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제 기획부터 실증, 현장 적용까지 전 과정에 사용자인 국민과 경찰이 참여하는 과기정통부·경찰청 공동추진 사업이다. 양 부처는 지난 3년간 ‘폴리스랩 1.0’ 시범사업을 협업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현안 이슈 중심의 폴리스랩 1.0과 다르게 미래 치안 이슈에도 대응하면서 국민과 경찰의 직접 참여도 촉진하도록 기획했다. 특히 과학기술 기반 10개 과제가 선정되면서 국가 치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폴리스랩 2.0은 크게 긴급대응형, 선제대응형, 현장참여형 3가지 과제로 구분된다. 긴급대응형은 시급한 치안 현장을 해결하기 위해 도주차량 추격용 발사형 GPS, 경찰 순행 보호복, 겹친 지문 분리 시스템 등 기술을 개발한다. 선제대응형은 사회변화 방향을 예측해 5년 이내 치안 현장에서 요구할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무인로봇과 포렌식 기술이 포함된다. 현장참여형은 국민과 현장 경찰관이 치안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수행 지원한다. 심민구 수습기자 wildboar@

## KT, 신한금융과 ‘디지털 금융’ 공동개발

‘잘나가게’ 비대면 대출 연동

KT가 디지털 플랫폼 기반 미래금융 사업모델 창출을 위해 신한금융그룹과 손을 잡는다.

KT는 신한금융그룹과 미래금융 디지털 전환(DX)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KT 디지털 플랫폼 노하우와 신한금융 역량을 접목한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력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속력을 낼 방침이다.

KT와 신한금융그룹은 통신과 금융 이종산업간 데이터 협력으로 신규시장 진입을 위해 디지털 금융 모델과 상품을 공동 개발한다. 또한, KT의 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 서비스 ‘잘나가게’ 플랫폼에 신한은행의 비대면 사업자 대출을 연계하고 통신데이터를 적용한 특화대출모델 개발 등 ‘잘나가게’ 서비스와 신한 금융 서비스 연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고객 편의성도 제고하는 공동 연구 가능성도 검토한다. 신한금융그룹

통합 AI컨택센터(AICC) 구축 사업에 KT 참여를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KT 모빌리티 및 로봇 플랫폼과 신한금융인프라 간 전방위적 제휴와 신한라이프의 AI 기반 홀트레이닝 서비스 ‘하우핏(HowFIT)’을 연내에 올레tv를 통해서도 제공하는 등 비금융 영역에서의 사업 확대도 점쳐진다. 메타버스, 교육, 반려견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신한금융그룹 사업에 KT도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구현모 KT 대표는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디지털 융합서비스로 미래금융의 새 패러다임을 열어가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 “올랐을 때 실탄 마련” 신세계·롯데 부동산 활용법 고심

부동산 급등에 ‘제값 이상’  
각종 M&A·투자자금 필요  
임차 부동산까지 활용 검토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양분하고 있는 ‘유통공룡’ 롯데와 신세계가 부동산 활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양사의 고심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부동산 호황이 계속되면서 가치 평가 측면에서 유리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유통화했을 때 제값 이상을 받아낼 수 있는 타이밍이란 것이다. 예컨대 이마트가 매각을 검토 중인 성수점 토지와 건물 장부가액의 합계는 6월 30일 기준 946억 원이지만, 관련 업계에선 매각가격이 8000억~1조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본다.

마침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신세계그룹은 이베이코리아 인수 자금이 필요하다. 이베이 인수전에선 고배를 마셨지만, 최근 한샘을 비롯한 여러 M&A(인수합병) 작업에서 자주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 롯데도 실탄이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다.

신세계그룹은 리츠(REITs) 사업에 관심을 보인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이나 지분(Equity)에 투자,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을 뜻한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세계그룹은 계열사인 신세계프라퍼티를 중심으로 이시스자산운용과 함께 리츠AMC(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양사는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선 신세계와 이시스가 각각 49%, 51%씩 출자해 합작 법인을 세우는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된다.

합작 법인이 설립될 경우 전국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매장, 스타필드, 호텔 등은 물론이고 신세계가 임차 중인 부동산 자산까지도 투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 최근 수년간 이마트는 자사 점포와 마곡부지 등을 처분하며 자산 유통화에 적극적



이마트 성수동 본사 건물. 사진제공 이마트

으로 나선 바 있다.

신세계로서는 계속된 투자로 현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우선 이베이코리아 지분 인수에 필요한

금액이 3조4404억 원이다. 향후 SSG닷컴과 이베이코리아 플랫폼 통합 작업에도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다. 올해 신세계그룹이 W컨셉, SSG랜더스 인수에 이어 스타벅스 지분 인수 등에 쓴 금액을 합하면 4조5000억 원에 달한다. 상반기 기준 이마트와 신세계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각각 8941억 원, 4671억 원이다.

2019년 롯데리츠를 상장한 롯데그룹도 부동산 자산 처분 작업이 한창이다. 롯데쇼핑이 50% 지분을 가진 롯데리츠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등의 점포를 자산으로 운영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다.

그룹 사업의 중심인 롯데쇼핑은 롯데리츠와 롯데물산 등 계열사를 통해 부동산 정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롯데백화점 중동점을 비롯한 5개 점포와 물류센터 토지 등 1곳을 롯데리츠에 양도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올해 4월엔 롯데월드타워몰(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 지분을 롯데물산에 넘긴 바 있다.

이베이코리아 인수가 무산된 대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꾸준히 모색 중인 만큼 롯데그룹의 현금 확보 작업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롯데는 최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강화하며 2030년까지 수소 사업에 4조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사모펀드 IMM PE와 가구업계 1위 한샘 인수전에도 참가했다. 또한 롯데는 카카오, CJ 등과 함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후보로도 꼽힌다.

이에 발맞춰 롯데쇼핑은 지난해 말 기준 1조 9132억 원 수준이었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규모를 반년 만에 3조17억 원까지 끌어올렸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유한 부동산으로 사업을 해오던 기존 업체가 IT 중심으로 개편되는 상황이 최근 자산유동화 원인이라고 본다”면서 “또 이와는 별개로 최근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올라 향후 비즈니스 기회를 잡기 위해 유통성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코로나의 역설? 외식 프랜차이즈 1곳 문 닫을 때 2곳 새로 열어

외식 프랜차이즈 지난해 개·폐점률

|         | 신규<br>개점수<br>(개) | 가맹점<br>개점률<br>(%) | 가맹점<br>폐점수<br>(개) | 가맹점<br>폐점률<br>(%) |
|---------|------------------|-------------------|-------------------|-------------------|
| 평균      | 1943             | 21.30             | 1068              | 11.70             |
| 한식      | 7417             | 26.22             | 3417              | 12.08             |
| 분식      | 2502             | 23.84             | 1089              | 10.38             |
| 중식      | 581              | 37.17             | 170               | 10.88             |
| 일식      | 474              | 21.52             | 349               | 15.84             |
| 서양식     | 465              | 33.36             | 193               | 13.85             |
| 기타 외국식  | 242              | 15.63             | 309               | 19.96             |
| 패스트푸드   | 351              | 12.59             | 337               | 12.08             |
| 치킨      | 4244             | 14.96             | 2902              | 10.23             |
| 피자      | 989              | 13.67             | 537               | 7.42              |
| 제과제빵    | 1155             | 12.43             | 832               | 8.95              |
| 아이스크림   | 334              | 14.12             | 120               | 5.07              |
| 커피      | 3294             | 19.05             | 1396              | 8.07              |
| 음료 커피 외 | 759              | 33.30             | 262               | 11.50             |
| 주점      | 1752             | 18.37             | 1526              | 16.00             |
| 기타 외식   | 4592             | 23.42             | 2583              | 13.18             |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코로나19로 지난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 중 하나인 외식프랜차이즈가 역설적으로 폐점보다 출점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이투데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신규 개점률은 21.3%로 폐점률 11.7%를 크게 웃돌았다. 2개 가맹점이 새로 생길 때 1개 가맹점이 문을 닫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외식업 15개 업종 가운데 폐점이 출점을 앞선 업종은 1개 업종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폐점보다 출점이 늘었다.

한식 프랜차이즈는 조사 대상 업종 중 가장 매장수가 많이 늘었다. 한식은 중식, 치킨, 피자과 더불어 배달 전문 매장이 크게 늘어난 업종 중 하나다. 지난해 한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한해동안 7417개가 새로 생겼다. 폐점수 3417개를 두 배이상 웃도는 수치다.

출점 매장수는 한식에 이어 치킨(4244개), 커피(3294개), 분식(2502개)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 구분

작년 평균 개점률 21.3%

폐점률은 11.7%에 그쳐

한식·치킨·커피·분식 등

배달 인기 업종 창업 몰려

이 모호한 기타 외식 매장도 4592개 늘었지만 다양한 업종이 혼재돼 있어 순위권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평균 개점률을 웃도는 업종은 15개 업종 중 한식, 중식을 포함한 7개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이 평균 출점률 이하 출점에 그친 것이다. 이는 특정 업종에 신규 개설이 집중됐음을 의미한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안정적인 업종에 창업이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며 “내점 고객 중심의 매장은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창업자들의 수요가 적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는 이 같은 안전

지향형 창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점률은 중식이 37.17%로 가장 높았다. 서양식과 음료 커피 이외 디저트 전문점도 높은 출점률을 기록했다.

폐점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기타외국식(19.96%)과 주점(16%)으로 나타났다. 기타외국식은 스테이크, 파스타 등 서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음식을 취급하는 점포로 남미나 동남아시아, 인도 요리 등이 포함된다.

영업시간 제한 영향이 가장 큰 업종인 주점의 경우 지난해에만 1526개가 문을 닫았지만 1752개가 새로 문을 열어 출점률이 폐점률을 근소하게 앞섰다.

평균 폐점률을 웃도는 업종은 조사 대상 중 기타외국식과 주점, 일식 등 7개 업종이었다. 아이스크림·빙수 업종은 조사 대상 가운데 폐점률이 5.07%로 가장 낮았고 피자과 커피전문점, 제과제빵 업종도 한자릿수대의 낮은 폐점률을 기록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BBQ의 미국 맨해튼 K-타운점 홀 매장에 고객들이 붐비고 있다. 사진제공 제너시스BBQ

## 미국서도 이제 ‘K치킨’

BBQ 급성장 외식브랜드 5위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인 제너시스BBQ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외식 브랜드 5위, 매출기준으로 미국 내 500대 외식브랜드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제너시스BBQ는 글로벌 외식업 전문지 ‘네이션스 레스토랑 뉴스’에서 발표한 ‘미국 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외식 브랜드 25위’에서 BBQ가 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956년 발간한 네이션스 레스토랑 뉴스는 외식업계 소식지로, 전년 대비 매장수, 매출, 매장당 매출을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빠른 성장세를 기록한 외식 브랜드 25개를 선정한다.

BBQ는 현재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 등 미국 내 주요지역을 포함한 15개 주에 진출해 있다. 운영 중인 51개 가맹점을 포함해 150여 개 매장이 운영을 준비 중이며,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지역은 총 250여 개 매장이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글로벌 외식업계를 강타한 가운데서도 BBQ는 미국에서 매장수를 꾸준히 늘리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배달 전문 매장 BSK 타입의 비즈니스 모델을 해외에서도 선보이면서 최근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 창업 희망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현재 미국에서만 80여 명의 창업 희망자들이 BBQ 가맹사업을 상담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맨해튼 매장 오픈 시 현지화 시스템으로 채택한 ‘그랩앤고(Grab&Go)’ 방식도 비대면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한층 활성화됐다.

BBQ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2025년 전 세계 5만 개 가맹점 개설 목표를 실현하는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 삼다수 판매권 다시 광동제약 품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4년간 추가 계약 전망

국내 생수 시장 1등 브랜드 ‘제주삼다수’의 위탁판매권이 다시 광동제약에 돌아갔다. 기존 위탁판매업자였던 광동제약은 제주삼다수 판매 사업권을 4년간 추가 보유할 전망이다.

제주개발공사는 8일 삼다수 소매, 비소매 판권 입찰에서 광동제약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다. 삼다수는 지난달 말까지 제안서를 받고 입찰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이후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LG생활건강을 광동제약과 함께 이번 입찰경쟁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LG생활



건강이 입찰 불참을 선언하며 경쟁 흥행은 저조했다. LG생활건강은 기존 코카콜라의 생수 브랜드에 집중하기로 결정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로써 2012년 삼다수 유통을 맡기 시작한 광동제약은 추가로 4년 동안 연 매출 3000억 원 규모의 삼다수 판권을 쥐게 됐다. 광동제약은 올 초 기존 유통 생수 사업 본부에 있는 제주삼다수 영업, 마케팅 등 관련 부서를 ‘생수 영업부문’으로 통합해 일원화하는 등 조직개편에 나서면서 제주 삼다수 사업을 대폭 강화하는 등 계약 연장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

김혜지 기자 heyji@



자판기에서 티셔츠 뽑아볼까

이마트가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편집숍과 이색 협업에 나섰다. 이마트는 부산을 대표하는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편집숍 ‘발란사’와 콜라베이션 상품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마트와 발란사의 로고와 개성 있는 그래픽을 담은 ‘베이직 티셔츠’ 2종, ‘예코백’ 2종을 기획했으며 SSG닷컴 내 하우디몰과 이마트 성수점 2층 팝업스토어에서 단독 판매한다. 팝업스토어는 이색 콜라베이션 상품 출시를 기념해 15일까지 무인 자판기에 상품을 담아 운영한다.

사진제공 이마트

# K-바이오, 유럽종양학회서 항암신약 결실 맺나

16일부터 온라인서 열려 공개 안 된 연구 과정 공유  
유한양행·브릿지바이오·한미약품 美 파트너사 참여  
3년 연속 참가 이수엡지스 임상 1상 최종 결과 공개

국내 제약·바이오업체들의 항암신약 연구 성과가 글로벌 무대에서 공개된다. 16일(현지시간)부터 온라인으로 열리는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주요 임상 및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항암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ESMO에서는 유한양행이 기술 이전한 레이저티닙을 비롯해 한미약품이 기술 이전한 △오락솔 △포지오티닙 △벨바라페닙, 이수엡지스의 ISU104, 브릿지바이오 BBT-176 등 항암 신약후보 물질의 임상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유럽종양학회는 1년 중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행사 중 하나다. 구두로만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공식 임상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기 때문이다. 다른 기업들의 항암 신약 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도 있다. 특히 국내 업체들이 유의미한 임상 결과를 도출할 경우 상용화

는 물론 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ESMO는 기존 연구들의 진행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회 자체가 임상 과정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라며 “다만 학회를 통해 라이선스 아웃(기술이전)을 이루거나 같은 적응증에 대해 다른 회사가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저티닙은 유한양행이 오스코텍으로부터 사들인 항암신약 후보 물질로 2018년 11월 안센에 기술이전했다. 안센은 ESMO에서 레이저티닙과 항암신약 물질 아미반타파의 병용투여 1·2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의미한 결과 도출 시 미국 식품의약국(FDA) 혁신신약 지정 및 내년 승인 가능성도 관측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결과에 따라 FDA ‘가속 승인’ 후 2022년 하반기 출시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로열티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2021년 유럽종양학회(ESMO) 발표 예정 파이프라인 |         |             |      |
|--------------------------------|---------|-------------|------|
| 제약사                            | 물질명     | 임상단계        | 파트너사 |
| 유한양행                           | 레이저티닙   | 임상 1·2상(병용) | 안센   |
|                                | 오락솔     | 임상 1상(병용)   | 아테넥스 |
|                                | 포지오티닙   | 임상 2상       | 스펙트럼 |
| 한미약품                           | 벨바라페닙   | 임상 1상       | 제넨텍  |
|                                | ISU104  | 임상 1상       |      |
| 이수엡지스                          | BBT-176 | 임상 1/2상     |      |
| 브릿지바이오                         |         |             |      |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비소세포암 치료제 시장은 2029년 36조 원까지 커지며 ‘레이저티닙’은 단독 또는 병용 요법을 통해 최대 5억 6900만달러(약 6247억 원)의 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약품의 미국 파트너사들도 대거 참가한다. 아테넥스는 2011년 기술이전 받은 항암신약물질 ‘오락솔’과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병용요법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스펙트럼은 2015년 기술이전 받은 ‘포지오티닙’의 임상 2단계에 있는 코호트 결과 중 하나를 공개한다. 제넨텍은 2016년 한미약품이 기술수출한 ‘벨바라페닙’의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경우 마일스톤 등 계약사항에 따라 한미약품에도 후속 효과가 기대된다.

직접 학회에 참가하는 국내 업체도 있다. 올해로 3년 연속 참가하는 이수엡지스는 ESMO에서 항암신약 ‘ISU104’(성분명 바레세타파) 임상 1상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ISU104는 기존 항암제에 약물 내성을 갖게 하는 주요 원인인 ErbB3를 억제하는 항체치료제다. 지난해에는 ESMO에서 ISU104의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수엡지스 관계자는 “3년 연속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ErbB3의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ISU104의 임상 1상 중간 발표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어 ESMO에서도 주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번 발표 후 임상 2상도 진행 예정이며 1상을 마무리하는 대로 기술이전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SMO에 처음 참가하는 브릿지바이

오는 4세대 비소세포폐암 신약 ‘BBT-176’에 대한 전임상 데이터를 발표한다. 브릿지바이오는 자사의 최초 항암신약 파이프라인 BBT-176의 임상 1/2상 첫 단계인 용량 상승시험을 올해 4월부터 진행했다. 아직 1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이번 학회에서는 임상 진입 성공과 프로토콜, 전임상 연구 데이터, 향후 계획 등을 전자 포스터 형식으로 공개한다.

BBT-176은 타그리소, 레이저티닙 등 3세대 표적치료 후 나타나는 ‘C797S 양성 삼중 돌연변이’를 대상으로 한다. 또 글로벌 임상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에서 가장 먼저 시행됐다.

브릿지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학회 참석으로 항암신약 분야 과제를 글로벌 무대에서 처음 선보이게 됐다”며 “현재 임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기회가 된다면 다른 글로벌 학회에서도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BT-176뿐 아니라 이중 돌연변이를 겨냥한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EGFR TKI) 항암 물질을 꾸준히 발굴해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강태우 수습기자 burning@

## “마이크로바이옴 위탁개발 생산” 지놈앤크퍼니, 美 업체 인수

성장단계 대규모 생산시설 필요  
2026년 매출 1000억 톱3 목표

지놈앤크퍼니가 마이크로바이옴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지놈앤크퍼니는 신 사업 진출로 2026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서 2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글로벌 톱3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기업 지놈앤크퍼니는 미국 마이크로바이옴 CDMO 업체 리스트 바이오로지컬 랩스(List Biological Laboratory, 이하 리스트랩)의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8일 밝혔다.

지놈앤크퍼니는 지난해 매출 1억 5000만 원, 영업손실 226억 원을 기록해 적자 경영을 기록했지만, 경영권 인수 대금 2700만 달러(한화 300억원)는 회사가 보유 현금으로 부담한다. 지놈앤크퍼니가 보유한 현금에 반기 기준 930억 원 수준

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의 합성어로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과 그 유전정보를 뜻하는 말로, 인체 질병과 마이크로바이옴이 연관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에 기반한 신약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204개로, 시장 규모는 2018년 5630만 달러(약 624억 원)에서 2024년 93억 8750만 달러(약 10조 8660억 원)로 약 167배 팽창할 전망이다.

이처럼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성장하면서 CDMO 수요 역시 높아지자 지놈앤크퍼니는 관련 사업 진출을 결정했다. 배지수 지놈앤크퍼니 대표는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임상물질 생산 수요는 연평균 23%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고, 마이크로바이옴 CDMO 수요가 위탁생산 업체들의 생산 능력을 초과할 전망”이라며 “올해는 12% 공급이 부족했고 2024년까지 생산설비 증설 계획은 있지만 그럼에도 수요 대비 공급은 40%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 마이크로바이옴 CDMO 시장은 6개 업체가 선도하고 있고, 이 회사들이 글로벌 수요의 70%를 차지한다.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인 만큼 초기 임상이 다수를 이뤄 소규모 생산시설로 감당할 수 있었지만, 임상 3상 등 후기 임상이나 상업화로 전환하면 대규모 생산시설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에 지놈앤크퍼니는 리스트랩 인수 후 신공장을 건설해 대규모 CDMO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배 대표는 “임상 3상과 상업화를 위한 대규모 생산 시설을 만들기 위해 신공장을 증설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글로벌 톱3 생산규모를 갖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리스트랩을 앞세워 자금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산호세에 있는 리스트랩은 43년의 역사를 지닌 마이크로바이옴 CDMO 업체로 마이크로바이옴 및 바이오독신 등을 위탁 생산하고 있다. 리스트랩의 연매출은

100억원으로, 업계에서 cGMP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 역량과 호기성 및 혐기성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균주 경험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배 대표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개발의 성공은 빠른 시장 출시와 선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며, 이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CDMO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향후 마이크로바이옴 CDMO 사업 관련 추가 매출 창출로 자사의 파이프라인 개발 속도를 높이고 기존의 바이오텍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해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업계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놈앤크퍼니는 현재 비소세포폐암, 두경부암, 요로상피암 적응증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후보물질 GEN-001에 대한 임상 1/1b상을 진행 중이고, 위암을 적응증으로 임상 2상도 진행 중이다. 또 자폐증을 적응증으로 후보물질 SB-121에 대한 임상 1상도 현재 이어가고 있다.

박미선 기자 only@

## HK이노엔, 노바셀과 자가면역치료제 개발

염증 해소 펩타이드 물질 활용

inno.N(HK이노엔)이 염증 해소를 유도하는 펩타이드를 활용한 자가면역치료제를 개발한다.

HK이노엔은 최근 펩타이드 면역치료제 전문 기업인 노바셀테크놀로지(노바셀)와 손잡고 염증 해소 펩타이드 후보물질을 발굴해 자가면역치료제를 개발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노바셀테크놀로지는 염증 해소 펩타이드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HK이노엔은 상용화를 목표로 이 물질에 대해 추가 연구 및 임상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펩타이드는 통상 50개 이하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물질로, 단백질보다 더 작다. 종류에 따라 체내에서 염증 방지, 세포 활성화, 세포 생성 촉진 등의 역할을 한다. 노바셀은 염증반응의 정상적인 종료 및 회복을 유도하는 펩타이드인 ‘펩티로이드’를 개발 중이다. HK이노엔은 펩타이드 후보물질인 ‘3세대 펩티로이드(PEPTIROID)’로 자가면역질환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3세대 펩티로이드는 이전 세대 펩티로이드 대비 염증 해소에 중요한 수용체(FPR2) 활성 능력 및 선택성, 생체 안정성을 높이고 물성을 최적화해 유효성을 강화한 동시에 적응증 및 투여 경로 확장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고동현 HK이노엔 신약연구소 상무는 “펩타이드 기술 선도 기업인 노바셀과 손잡고 펩티로이드의 장점을 극대화해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폭넓게 쓰일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태훈 노바셀 대표이사는 “양사간 전문성을 바탕으로 파이프라인 확장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 메디톡스, 美 보톡스 사업 제동… 앨러간 기술수출 계약 종료

신경독소 후보 제품 권리 반환  
美·유럽에 품목허가 신청 계획

메디톡스의 미국 보툴리눔 독신 제제(보톡스)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앨러간이 메디톡스에서 도입한 액상형 보툴리눔 독신 제제의 개발을 중단하면서 앨러간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던 제품에 대한 허가, 상업화 등이 모두 메디톡스의 몫이 됐다.

메디톡스는 앨러간(현 애브비 계열사)과 맺은 신경독소 후보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됐고, 해당 제품에 대한

애브비와의 개발 및 상업화가 중단됐다고 8일 공시했다.

메디톡스는 앨러간에서 받은 마일스톤 일체를 반환하지 않고, 애브비가 진행한 모든 임상 자료를 이전 받는다. 또 해당 제품에 대한 개발과 허가, 상업화 등 모든 권리는 메디톡스가 갖게 된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3년 앨러간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메디톡스의 신경독소 후보 제품을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서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독점권을 부여한 바 있다.

이번 계약 종료는 메디톡스의 액상형 제



품 ‘이노톡스’가 품목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이 확인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노톡스는 메디톡스가 개발한 세계 최초 액상형 보툴리눔 독신 제제로, 메디톡스는 앨러간을 통해 미국에 액상형 제품을 기술 이전했고 앨러간은 해당 보툴리눔 독신 제제에 대한 임상 3상을 최근 마무리했다.

계약은 종료됐지만 액상형 보툴리눔 독신 제제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 측 관계자는 “앨러간에서 임상 자료 등을 넘겨받아 예정대로 유럽과 미국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시기나 방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 손이 필요한 곳에서 봇당백의 능력을 발휘할 DIGICO KT의 핵심인재. 저는 AI 로봇입니다.



[ AI 서버로봇 servi ]

손이 필요한 곳곳에서 봇당백의 능력을 발휘할  
DIGICO KT의 핵심인재. 저는 AI 로봇입니다.  
호텔, 카페, 레스토랑부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댁까지  
일손이 되고 효자손이 되겠습니다.

**KT AI 로봇**  
기다림 없는 신속한 전달, 자율주행,  
똑똑한 음성인식과 따뜻한 발화 등  
KT의 앞선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을 돕는 로봇 서비스



## KT AI 로봇을 무료로 만날 수 있는 기회(1개월)

24,36개월 임대형 가입고객 한정 1개월 이용료 무료 & 설치비 50만원 면제 / 무약정 고객 월 20만원 이용료 할인 / 9월 30일 가입 & 10월 15일 설치 완료 고객 한정



[ 호텔로봇 ]



[ 서버로봇 servi ]



[ 서버로봇 \*9월 출시 예정 ]



[ 케어로봇 ]

〈네이버·카카오〉

# 하루 새 13兆 증발, 플랫폼 공룡도 못 피한 ‘규제 리스크’

올해 들어 난생처음 주식 투자에 손을 댄 회사원 이모(45) 씨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폭락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그는 7월 중순 네이버가 거침없이 질주 하던 시기에 살던 집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과 은행 예금을 몽땅 털어 마련한 2억 원을 투자했다. 현재 이 씨는 원금의 7%를 날린 상태다. 이 씨는 “하루에도 수 만원씩 오르는 주가에 흑해 무리를 했다”며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상품 비교·추천은 광고 아닌 중개” 시정조치 요구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 ‘공정화법’ 제정 이슈도 악재 작용  
“전통산업보다 확장성 큰 플랫폼 분야 성장 불확실성 커 타격”

거침없이 질주하던 플랫폼 공룡기업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 씨처럼 뒤늦게 투자에 나선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시가총액은 하루 새 13조 원 가량이 허공으로 증발했다.

◇사라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추락=중소기업 직원 최모(33)씨는 지난해 3월 당시 연봉에 해당하는 4500만 원을 주식에 넣었다가 모두 날린 경험이 있다. “다시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수심 변을 다짐했지만 올해 1월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오르내리자 과거의 쓰린 기억은 눈 녹듯 사라졌다. 최 씨는 아내 몰래 마이너스 통장에서 수천만 원을 인출해 값이 믿을만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두 개에 다들기(올인)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였다. 종목을 택

할 때 참고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플랫폼산업이 유망하다는 기사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한 장이 전부였다.

최씨와 같은 ‘동학개미’를 망연자실하게 만든 배경은 잇따른 규제리스크다. 카카오 주가가 10% 넘게 하락한 것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갑질 논란이 악재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콜택시 어플 ‘카카오T’를 통한 갑질 논란과 관련해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7일)에는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낸셜 등 일부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금융 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



소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금융 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단순 ‘광고 대행’이 아닌 ‘투자 중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으로 카카오와 네이버가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면 금소법에 따라 금융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에서 잡자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가를 끌어내렸다. 지난 7일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에서 “이달 열린 하반기 정기 국회 당내 워크숍에서 온플법을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며 “9~11월 정기국회에서는 부처 간 조정 등을 포함해 당 차원에서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온플법 관련 법안은 총 8건에 달한다. 하지만 규제 권한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반년 넘게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카카오·네이버·쿠방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약 180만개의 업체는 여전히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규제 리스크’에 학습효과는 없다=시기를 막론하고 주식시장은 기업 가치의 훼손을 가장 불편하게 받아들인다. 시간과 장소를 1900년대 초 미국으로 돌려보자. ‘규제의 시대’ 혹은 ‘소송의 시대’라 불린 시기다. 규제리스크의 충격은 컸다.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암살 시도 때 다우존스

지수는 -4.53%(1901년 9월 6일) 하락했다. 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이 주간 상무위원회에서 철도 조사를 지시한 날(1907년 3월 14일) 무려 -8.65%폭락했다.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록펠러 가문에 시련의 시기였다.

규제의 대상은 ‘기술(Technology)’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규제 탓에 장기간 주가 부진을 겪은 IBM이 단적인 예다. 미국 법무부는 1969년 1월 17일 IBM에 대해 ‘범용 디지털 컴퓨터’ 시장을 독점하려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서면 독점 금지법에 근거). 이 소송은 1982년 1월 8일야야 종료됐고 13년이 소요됐다. 규제를 벗어난 이후 IBM은 제품가격을 내리면서 점유율은 회복했지만, ‘소프트웨어’ 분야 경쟁에서 밀려났다. 장기간의 분쟁은 지금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탄생시켰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규제로 인해 기업의 성장 경로에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면 가치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면서 “플랫폼과 같은 기존의 전통 산업보다 확장성이 더 큰 산업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정치권의 인터넷 플랫폼 규제 논의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급락했다”며 “시장 독점 행위 규제 강화 및 핀테크 사업 중단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 csjjin2002@

## 56兆 몰린 현대중공업 ‘파상’ 기대감 솔솔

현대중공업이 56조 원에 가까운 청약 증거금을 끌어모으며 상장 첫날 ‘파상’ 기대감을 높였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뒷받침된 데다 올해부터 적은 돈으로도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약 171만여 개 계좌가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 공모주를 추천 방식으로 배분하게 됐고 이에 따라 주식을 1주도 못 받는 청약자가 나오게 됐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일부터 이틀간 8개 증권사에서 진행된 현대중공업 일반 공모주 청약에 총 56조 562억 원의 증거금이 들어왔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80조 9017억 원), SK바이오사이언스(63조 6198억 원), 카카오게임즈(58조 5543억 원)와 빅히트엔터테인먼트(58조 4237억 원)에는 못 미치지만 성공적이라 평가다.

8개 증권사에서 총 171만 3910개 계좌가 청약에 참여해 평균 청약 경쟁률은 405.50 대 1로 잡집질계됐다. 이 같은 청약 열풍은 충분히 예견됐

일반투자자 171만명 참여  
평균 청약경쟁률 406대 1  
‘파상’ 성공 땀 시총 29위

던 일이다. 증시 대기자금(투자자에 탁금)이 70조 원에 육박한 데다 지난해 이후 ‘파상’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을 이어간 공모주를 보며 학습효과가 생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일반 청약 물량의 절반을 최소 증거금 이상을 낸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배분하는 ‘균등배분 방식’이 시행됐고, 증권사별로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점이 흥행 요인으로 작용했다. 회사원 김모 씨(31)는 “증권사 4곳에 청약을 넣었다. 소액으로도 청약할 수 있다 보니 지인 중에는 가족까지 동원해 계좌를 만들어 청약에 나섰다”고 했다.

현대중공업의 공모가(6만 원) 기준 시총은 5조 3264억 원이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 개장 이후 상한가를 기

록하는 이른바 ‘파상’을 기록하게 되면 시총은 13조 8486억 원에 달한다. 코스피 시총 순위는 29위다.

증권가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앞서 기업공개(IPO) 시장에 나선 대어급 종목들과 달리 ‘착한 공모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진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중공업은 경쟁사 대비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경쟁사 대비 저렴하게 증시에 등판한다”라며 “선박 교체 사이클과 환경규제 강화의 영향에 힘입어 상장 후 양호한 주가흐름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황어영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업계 수위업체라는 점에서 10% 프리미엄을 부여해 목표주가로 9만 원을 제시했다. 상장 초기에 나올 수 있는 매도물량은 공모주 말고는 없다”며 “수요예측에서 기관들이 배정받은 주식을 일정기간(15일~6개월)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의무약약비율(53.1%)을 감안하면 초기 유통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수의 10%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박기영 기자 pgy@

## KB자산운용 ‘수소경제 ETF’ 3000억 돌파

올 2400억 이상 늘어

KB자산운용은 국내 유일의 수소경제 ETF인 ‘KBSTAR Fn수소경제테마 ETF’가 3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KBSTAR Fn수소경제테마 ETF는 연초이후에만 2400억 원 이상 늘었다.

최근 1개월 코스피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KBSTAR Fn수소경제테마 ETF는 1.77%로 양호한 수익률을 거뒀다. 최근 거래량 또한 크게 늘어 일평균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소경제는 각국 정부가 내세우는 탄소 중립실현의 핵심이 되는 사업으로 수소저장업체인 일진하이솔루스가 이달 초 상장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기업협의회’가 출범했고, 하반기 정책적인 이슈와 더불어 수소경제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금정섭 KB자산운용 ETF전략실장은 “이미 현대차, SK, 포스코 등 5개 그룹사



는 약 4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시작했고, 이번 수소기업협의회 출범을 통해 수소관련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수소관련 기업들을 선별해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소관련 ETF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8월말 기준 보유종목을 보면 현대모비스 14.01%, 한화솔루션 13.73%, 현대제철 13.62%, 현대차 13.09%, 한온시스템 8.44% 등이며, 산업별 비중은 소재 39.2%, 경기소비재 38.0% 등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미래에셋-CJ대한통운 ‘스타트업 투자 펀드’ 만든다

1대1 매칭방식 조성... 물류·로봇 등 신성장 분야 집중 투자

미래에셋과 CJ대한통운이 각각 50% 출자해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들에 투자하는 신규 펀드를 조성한다. 이는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이끄는 선도기업과 함께 신성장동력 분야의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미래에셋그룹과 CJ대한통운은 1대 1 매칭 방식으로 펀드를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조성된 펀드의 운용은 미래에셋캐피탈

이 맡는다. 해당 펀드의 존속기간은 7년이고 물류, 유통, 로봇 등 ICT 하드웨어, ICT 솔루션, 데이터 플랫폼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펀드조성을 통해 산업 트렌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신기술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대기업-벤처기업간의 개방적혁신(Open Innovation)을 이끌어 내는 것이 양사의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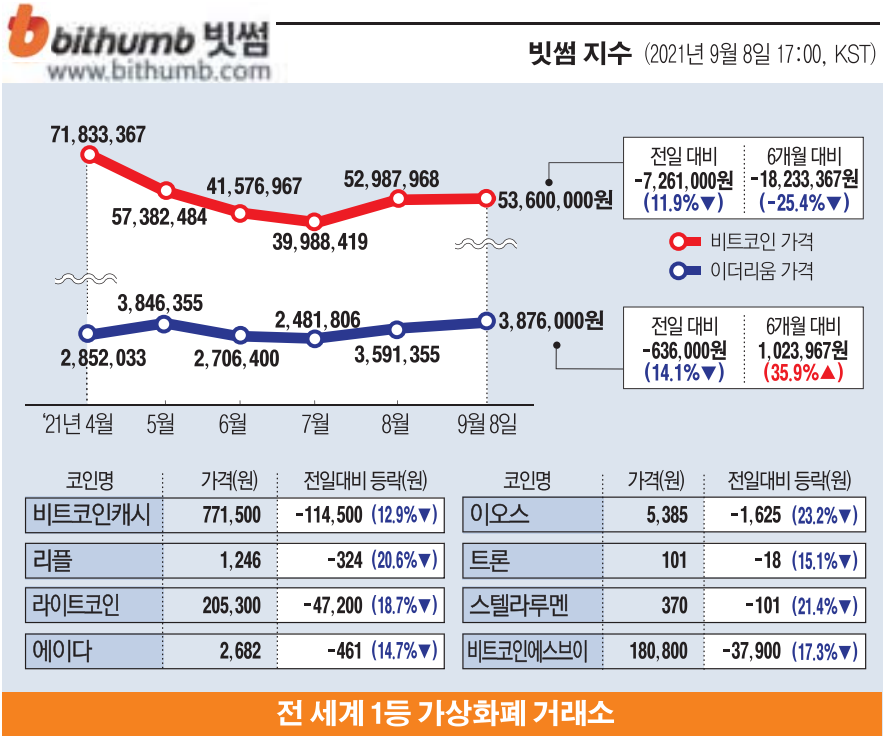
CJ대한통운은 국내 최고의 비즈니스 플

랫폼을 통해 벤처기업들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은 국내 최고의 투자전문 금융그룹으로 벤처부터 글로벌기업 투자까지 다양한 경험과 최적화된 금융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이번 양사가 조성한 펀드의 투자가 벤처기업들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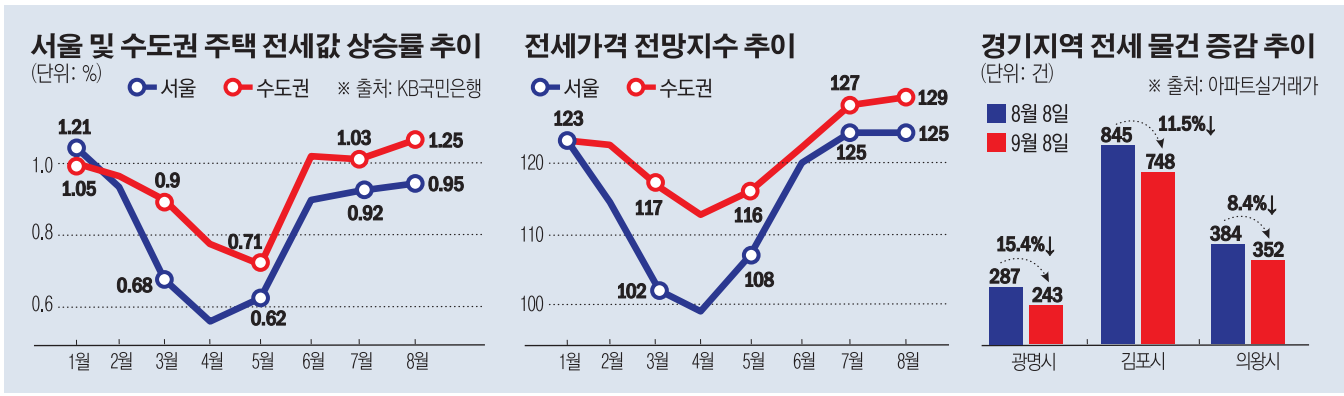
# 치솟는 전셋값도 빠듯한데 ‘전세대출’까지 죄나

## 수도권 전셋값 지난달 1.25% ↑ 3기 신도시 등 청약 대기 수요에 전세대출 규제 카드까지 ‘만지작’

수도권 전세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세 대출 규제까지 예고돼 전세 실수요자의 ‘이중고’가 예상된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달 연내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전세 물건이 최근 한 달 새 10% 이상 줄어든 곳도 속출했다. 여기에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진입을 위한 전세수요도 늘고 있고,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규제도 예정돼 있어 전세 실수요자의 내 집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8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수도권 주택 전셋값은 1.25% 상승했다. 이는 지난 1월 1.05%를 기록한 이후 올해 월간 기준 가장 많이 오른 수치다. 서울 주택 전셋값 역시 지난달 0.95% 올라 1월(1.21%)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보다 경기와 인천 지역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경기는 1.07%에서 1.44%로, 인천은 1.24%에서 1.52%로 상승했다. 수도권 전셋값은 5월 0.71% 오른 뒤 석 달 연속 1%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6월과 7월에는 각각 1.04%와 1.03%씩 올랐다.

전세 시장 불안 속에 전세 신고가 거래 행렬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영향으로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과 우수 학군, 역세권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렸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 전용면적 84㎡형은 지난 4일 10억4000만 원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 현재 같은 평형대 전세 물건은 없다. 직전 전세 계약금 최고가는 지난 5월 거래된 9억2000만 원으로, 넉 달 새 1억2000만 원 더 올랐다.

경기 지역에선 서울 접근성이 좋은 광명과 김포로 전세수요가 집중됐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8일 기준 경기 광명시 전세 매물은 한 달 전보다 15.4%(44건) 줄어든 243건으로 집계됐

다. 경기 지역 내 전세 매물 감소율 1위 기록이다. 같은 기간 김포시는 845건에서 748건으로 11.5%(97건) 줄어 경기에서 네 번째로 감소율이 높았다.

광명시 하안동 주공8단지 전용 84㎡형은 1일 4억8000만 원의 신고가에 전세 거래됐다. 이 단지 역시 같은 평형 전세 매물은 없다. 전용 84㎡형보다 작은 전용 59㎡형 전세 보증금 호가(집주인이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는 4억 원이다. 김포시 운양동 한강신도시리버에일린의틀 전용 84㎡형도 2일 신

고가인 4억 원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

앞으로 전세 시장 불안요소도 많아 전세 실수요자의 전셋집 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7만1000가구를 포함해 10만 1000가구를 추가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사전청약 계획을 합치면 총 사전청약 물량은 16만3000가구에 달한다. 사전청약은 당첨 이후 최대 3년 이후인 본청약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전셋집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사전청약 물량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전세난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제한 카드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무주택자까지 대출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전세대출 제한 대상은 다주택자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부동산규제 지역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 등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인천땅 쓸어담는 중국인… 外人거래 42% 급등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 2417건… 전문가 “실거주만 허용, 관리·감독 강화 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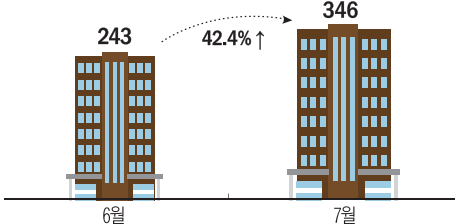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수도권 부동산을 쓸어담고 있다. 부동산 규제로 내국인의 매수가 막힌 틈을 타 외국인은 오히려 안전자산인 수도권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동시에 집값 불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누적 외국인의 건축물(아파트·단독·다세대·오피스텔 등) 거래량은 1만300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2073건)보다 7.7% 늘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1월 이래 최대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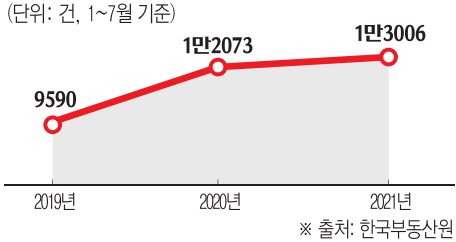
7월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량은 1787건을 기록했다. 이 중 거래가 가장 늘어난 곳은 인천이다. 인천 거래량은 이달에만 346건으로 6월(243건) 대비 42.4%(103건) 증가하며 전체 거래량의 5분의 1을 차지했다. 주로 부평구(137건), 미추홀구(45건), 서구(44건) 등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7월까지 누적 거래량은 총 2417건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이끈 것은 ‘차이나머니’였다. 중국인들은 외국인 중 국내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소유권이전등기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국

올해 6~7월 외국인 인천 지역 건축물 거래량 추이 (단위: 건)



연도별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 (단위: 건, 1~7월 기준)



내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은 외국인은 중국인(62.5%)이 차지했다. 중국은 줄곧 2위를 기록하다 2013년 36.5%로 미국(33.92%)을 따돌린 이후 8년 연속 1위를 기록 중이다.

중국인들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 부동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로 살펴보면 인천 부평구와 경기 부천시

산을 가장 많이 매수했다. 이밖에 서울 부동산도 많이 찾았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집값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은 5월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매가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제주에 쏠렸던 중국인들의 투자 수요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따른 시장 변동 위험이 존재한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사람은 부부가 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하면 2주택자가 돼 양도소득세가 증가된다. 반면 외국인은 부부 여부를 세무당국이 증명하지 못하면 이마저도 어렵고, 주택 구매 시 자금출처 소명 규정 적용도 어렵다”며 “외국인 주택 구매를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비거주 외국인일 경우 구매 제한 또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촘촘한 정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 국회의사당 분원 호재되나 슬금슬금 오르는 세종집값

넉 달 가까이 하락 중인 세종시의 아파트값이 반등 조짐을 보인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이 들어선다는 기대감과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 등이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도담동 도람마을9단지 전용 106㎡형은 지난달 12억4000만 원에 손바뀜됐다. 지난 4월 14억4500만 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실거래가가 11

0.15%까지 떨어지던 아파트값은 지난주(8월 30일 기준) -0.01%로 낙폭을 크게 줄였다. 아파트 전셋값도 0.4%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20주 만에 상승전환했다.

이는 최근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영향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세종 분원 설치 가시화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일단



행정수도 완성에 한발 다가섰다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소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올해 8000가구를 밀든 세종시 아파트 주물량이 내년

### 행정수도 완성에 급등세 “집값 바닥쳤다” 호가 올려

찍은 뒤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동일 면적이 9억2000만 원(8월)에 팔렸다. 하지만 현재 호가는 11억 원 안팎까지 올라 있다.

다정동 A공인 관계자는 “집값이 한동안 조정된 뒤 최근 한두 건씩 거래가 성사됐고, 이에 집주인들의 호가가 슬금슬금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해 행정수도 완성에 힘입어 급등세를 타다가 올해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해 역대급 상승장에 대한 피로감과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금 부담, 입주물량 증가 등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서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 5월 셋째 주(17일 기준 -0.10%)부터 3개월 넘게 약세를 보이고, 전셋값은 19주 연속 미끄러졌다.

그러나 8월 둘째 주(9일 기준)

급감하는 것도 상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장 세종시에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4000가구가 넘는 입주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지만, 내년 입주물량이 3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약세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담동 D공인 관계자는 “급매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서 매도에 여유가 있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조금씩 높이는 분위기”라며 “입주물량이 내년에는 크게 줄어드는 데다 집값이 3개월 이상 조정받으면서 바닥을 쳤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민심을 잡기 위해 나을 개발 공약에 이 일대 집값이 다시 들쭉날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서울 빌라 지하층도 전셋값 1억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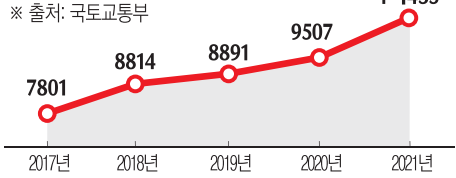
### 서초구 1억7434만 원 1위

서울에 있는 전용면적 60㎡형 이하 연립·다세대(빌라) 지하층의 올해 평균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을 돌파했다. 반지하 등이 포함된 지하 주거지는 옥탑방과 함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으로 꼽힌다.

8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올해(8월 말)까지 서울에서 전세 거래된 전용 60㎡형 이하 빌라 지하층의 전세 보증금을 연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1억435만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빌라 지하층의 평균 전세금이 1억 원을 돌파한 것은 국토부가 관련 실거래가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 빌라 지하층의 평균 전세금은 2017년 7801만 원을 기록했고, 2018년 8814만 원으로 치솟았다.

서울 빌라 지하층 평균 전세금 추이 (단위: 만 원, 8월 기준)



2020년에는 9500만 원, 올해는 1억 원을 넘어서며 가파른 상승 폭을 보였다.

올해 서울 빌라 지하층 평균 전세금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서초구로 1억7434만 원에 달했다. 방배동 전용 59.83㎡형 지하층이 3억3000만 원, 반포동 전용 43.56㎡형 지하층이 2억8000만 원에 전세 거래된 것이 평균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강남구도 개포동에서 전용 37.35㎡형 지하층이 3억5000만 원에 거래된 영향으로 1억7073만 원의 평균 전세금을 기록했다. 중

로구(1억6031만 원), 용산구(1억4387만 원), 영등포구(1억3214만 원), 중구(1억3000만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 올해 전세금이 가장 높은 곳은 중로구 부암동의 전용 59.87㎡형 빌라 지하층이었다. 2020년에 지어진 신축 빌라로, 4억 원에 거래됐다. 용산구 이태원동에 들어선 전용 41.76㎡형 지하층은 3억8000만 원, 북아현동에 들어선 전용 59.36㎡형 지하층은 3억5000만 원에 전세 거래돼 평균치를 웃돌았다.

서울 빌라 지하층 평균 전세금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도봉구(7089만 원)로 집계됐다. 노원구(7200만 원), 강북구(7909만 원), 은평구(8015만 원), 양천구(8114만 원), 중랑구(8429만 원) 순으로 전세금이 낮았다.

다방 관계자는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급등 영향으로 주거 취향 시설인 빌라 지하층의 전세금도 오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 ‘강제징용 피해’ 日기업 상대 손해소 1심 또 패소

대법원 배상청구권 인정 이후  
소멸시효 기산점 두고 판단 갈려  
유가족, 일본제철 상대 소송 제기  
“피해사실 입증 문제” 항소 의사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또 패소했다. 대법원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이후 소멸시효 기산점을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만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강제징용 피해자 정모 씨의 유가족 등 4명이 일본제철주식회사를 상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 씨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마친 뒤 김영환(왼쪽)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과 전범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정 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자녀 이 모씨 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공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원고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 사유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써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최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처음 내놓았다.

2018년 10월 이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며 “신일철주금은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 청구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지를 두고 판결이 갈라지고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가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재판부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기산점으로 본다면 2015년 이후에 제기한 소송은 소멸시효 완료로 기각할 수 있다.

미쓰비시·일본제철 손해배상소송의 경

우 재판부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선고를 기산점으로 판단해 청구소멸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 측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은 부모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알기 어렵다”며 “유족에게 당사자와 동일하게 피해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일본 기업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일본 정부 뒤에 숨는 것은 문제”라며 “비슷한 사건을 두고 광주고법에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소멸시효 기산점이라고 판단한 만큼 다투볼 여지가 있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구예지 수습기자 sunrise@



**공수처 간 임은정** 임은정 법무부 검찰담당관이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사건을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로 배당해 임 담당관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왕따·학폭 없도록... ‘메타버스’ 활용 예방교육

교육부, 미래교육 대응 논의

교육부가 최근 진화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교육부는 학교폭력은 실제로 미리 체험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메타버스를 통해 예방하고 대처하는 교육 계획 수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협의회의에서는 미래세대 교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자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승환 팀장은 “메타버스를 통해 과학 실험이나 제품 체험 등 직접 경험해보기 힘든 교육을 가상현실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왕따나 학교폭력도 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세계에서 상대방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교육 당국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부터 등교수업 일수가 늘어나면서 학교폭력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4월 5일~30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조사한 결

과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1.1%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2019년 1차 조사 당시보다는 0.5%포인트 줄었다. 피해 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이 4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집단따돌림(14.5%), 신체폭력(12.4%), 사이버폭력(9.8%) 등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일수가 감소해 집단따돌림은 지난해보다 11.5%포인트 감소했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등을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2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 ‘대입 수시모집’ 내일부터 원서접수

“공동원서·자소서 미리 준비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올해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10일부터 시작된다고 8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4년제 대학의 경우 9월 10~14일 기간 중 대학별로 3일 이상이다. 전문대학 1차 모집은 9월 10일~10월 4일, 2차 모집은 11월 8~22일이다.

공동원서와 공동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나 ‘진학어플라이’에서 작성하면 되고 일반대학 188개교, 전문대 133개교, 기타 5개교 등 대부

분 대학에 지원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공동원서 제출 서비스는 수험생이 공동원서를 1번 작성하면 지원한 대학 여러 곳에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공동원서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유웨이어플라이’나 ‘진학어플라이’ 중 한 곳에서 통합회원으로 우선 가입해야 한다.

한 번 작성한 공동원서와 공동자기소개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활용할 수 있다. 추후 수정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교협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공동원서 접수 사전 서비스가 운영 중이어서 수

험생들은 공동원서와 공동 자기소개서 작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대교협은 “원서접수 마감 시점에 사용자 접속이 폭주하면 공동원서, 공동자기소개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다급하게 원서를 작성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수험생들은 사전에 원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수험생들이 대입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 대한 대학별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어디가’에서는 전국 4년제 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와 성적 산출 서비스를 이용해 학생 스스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진단해보고 온라인이나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손현경 기자 son89@

## 축산 근로자 연장수당 예외 ‘합헌’

헌재 “근로조건, 사업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해”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휴일수당 지급 예외 규정을 적용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축산업 노동자 A 씨가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축산업 종사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헌법불합치)대 4(기각·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다수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했다.

농장에서 소 관리, 분뇨 정리 등 업무를 한 근로자 A 씨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제한,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규정한다. 다만 축산업 등 근로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헌재는 “축산업의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업특성에 맞는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인간의 존엄을 보

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축산업은 중노동 중심”이라며 “영세성을 고려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을 보장하고 가산임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자칫 영세 농가의 도산·폐업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도 존재한다”며 “축산업 종사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규정을 전면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규정 적용을 전부 배제함으로써 축산업 근로자들의 적정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어떠한 법적 보호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축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적절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 최서원 ‘안민석 허위사실 유포’ 손해소 승소

安 “최 씨 일가 수조원 재산 은닉” 주장... 법원 “1억 배상하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부장판사는 8일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씨는 안 의원이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면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안 의원은 당시 최 씨 일가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불법 은닉재산을 국내외에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씨는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 씨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육종 진술서를 통해 “안민석은



최서원 씨

안민석 민주당 의원

그동안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욕망과 야욕 때문에, 그 직위를 이용해 20대 청춘(딸 정유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한 가족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말살시킨 자”라며 “그동안 그가 주장한 물증과 증거도 없는 거짓에 대해 몇 가지만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구속기소된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을 확정받았다. 구예지 수습기자 sunrise@

# “다름을 보듬는 포용, 관객의 눈물 보며 알아가요”

 **초대석**

**뮤지컬 ‘헤드윅’ 배우 김려원**

15cm가 넘는 하이힐을 신고 화려한 가발을 쓴 채 무대 위를 휘젓는 로커 헤드윅. 그 옆엔 헤드윅의 공연에 맞춰 다양한 연주를 선사하는 밴드 앵그리인치가 있다.

이들 사이에서 조용하면서도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뽐내는 이가 있다. 헤드윅의 서류상 배우자인 이츠학이다. 수업을 불리고 가죽 재킷을 입고 있어 자칫 남자 배우인가 오인하기 쉽지만 ‘헤드윅’ 무대 위에 오르는 유일한 여성 배우다.

“처음 캐스팅 발표가났을 때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굉장히 대단한 걸 하고 있다는 걸 축하 인사를 받고 싶었죠.”

최근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총무아트센터에서 이번 시즌 이츠학 역으로 처음 합류한 배우 김려원을 만났다.

김려원은 캐스팅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누구보다 치열하게 낮은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헤드윅’은 짜진 악보나 대본을 그대로 실행하는 여타의 작품과 달리 ‘날 것 그 자체’로 정평이 나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정해진 것을 하는 걸 좋아해서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첫 연습 시간에 ‘해봐’라고 하셨거든요. 이츠학마다 부르는 부분과 라인이 다르기도 했고요. 처음엔 뭐가 기본인지 몰라 정말 어려웠어요. 말 그대로 무지(無知)였죠.”

배우라는 포지션에 무대감독 역할까지 더해진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 ‘공식’ 러닝타임은 인터미션이 따로 없는 2시간 15분인데 이츠학은 조명이 헤드윅에 향해 있을 때도 무대 위에서 몸과 마음을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관객의 시선을 받지 못할 때도 감정선은 유지해야 해요.” 김려원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백조 같다’고 표현했다.

“정말 제 안에선 쉴 틈 없이 움직이고



뮤지컬 ‘헤드윅’에서 이츠학 역을 맡은 배우 김려원이 26일 서울 중구 퇴계로의 한 스튜디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여자가 되고 싶은 남자’ 사연 있는 헤드윅의 남편 이츠학役 “공연마다 이성·감성 줄다리기…이해 폭 넓은 관객 덕에 힘”

있어요. 정신 차리자고 수없이 되뇌죠. 제 나름대로 연기하고 반응하다 무대를 세팅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중간중간 대사도 쳐줘야 하죠. 헤드윅의 기본도 살펴야 해요. 저는 듣는 사람이자 헤드윅의 남편이니까요. 이성과 감성의 줄다리기를 계속 해야 하는 극이에요.”

다음은 김려원과 이츠학의 일문일답.

- 이츠학 역을 맡게 되면서 배우로서 커리어가 확장되고 한 단계 높아졌다.

“‘헤드윅’이 이렇게 큰 극장에서 하는 게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참여하게 된 것도 뜻깊어요. 한 번 할 때 훨씬 더 많은 분이 봐주시는 거잖아요. 감회가 새로워요. 조명이 제 자리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많지만, 2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계속 같이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것도 신선한 도전이에요. 대부분 헤드윅의 몫이지만 옆에서 돕는다는 게 신기하기도 해요.”

- 연습할 때는 어땠나.

“정말 특별했어요. 다른 작품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츠학은 헤드윅과 비교하면 정보가 많이 없어요. 악보도 지난 시즌에

완성됐다고 들었는데, 이츠학이 부르는 부분이 정확히 표시되지 않아요. 음도 그렇고요. ‘더 롱 그리프트’(The Long Grift) 멜로디도 같이 익히고 부를 줄 알았는데, 한 번 해보라고 하셔서 당황스럽기도 했죠. 저만 처음 이츠학을 하는 것이어서 더 어렵게 느낀 거 같아요. 같은 역할을 맡은 제이민과 김영미 언니가 많이 도와줬어요. ‘이렇게 해 봐’라는 말이 힘이 됐죠.”

- 인기있는 작품이라 부담이 컸을 텐데.

“처음엔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관객분들이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라는 걸 인정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래 보신 관객들이 많은 만큼 받아들이는 폭이 넓으시더라고요. 관객도 작품의 의미랑 많이 닮아 있었어요.”

- ‘헤드윅’ 첫 무대를 떠올린다면.

“많이 떨렸어요. 이젠 어떤 헤드윅은 어떻게 서포트 해주어야 할지 정리가 돼서 덜 떨리는데 처음엔 헤드윅마다 매뉴얼이 달라서 헷갈렸어요. 무대 감독님을 체험하는 것 같더라고요. 감독님들이 저한테 늘 맞

게 세팅해주셨던 것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지 이츠학 하면서 알게 됐어요.”

- 무대 위에서 이츠학을 보면 언뜻 ‘쉬고 있나’ 생각할 수 있다.

“절대 아니에요. 하하. 이 노래 끝나면 뭘 해야 할지 등 계속 생각해요. 까먹을까 봐 들어가기 직전까지 대본에 체크했던 것 다시 확인하고요. 하지만 가끔 관객들이 ‘오늘 블랙 아웃, 화이트 아웃 왔던 거 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와요. 다행히 ‘헤드윅’은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공연이에요. 노래 들어가는 타이밍을 자유롭게 해도 집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즐겨 주시고요. ‘헤드윅’에선 이츠학으로 살아 있으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더라고요.”

- 작품에 참여하기 전과 후 생각이 바뀌었을 것 같다.

“우선 이츠학은 여성이 되고 싶은 남성이에요. 캐스팅 보드에 여자 얼굴이 붙어 있어서 남성이 되고 싶은 여성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 점을 알고 보시면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올 거예요. 저는 평소에도 소외된 사람, 약자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작품을 하면서 생각이 더욱 많아졌어요. 작품을 보는 분들이 사람의 다양성에 대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인간애적으로 모두를 편견 없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눈에 달라 보인다고 타인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관객들이 이 마음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헤드윅’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왔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 관객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마스크 쓰고 공연 보러 오시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힘든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환호성도 못 질러서 박수로 감동을 표현해주고 계시는 것도 정말 감사드려요. 자부심 느끼며 하고 있습니다. ‘헤드윅’이 끝나기 전에 단계가 나아서서 기립 박수 한 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예요. 하하.”

김소희 기자 ksh@

## 새로 나온 책



**박재식의 아파트 생활학**  
박재식 지음/ 북트리거 펴냄/ 1만6800원  
아파트에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다. 소나무, 철쭉, 고양이와 같이 근처에 터

를 잡는 생물뿐 아니라 개미, 집먼지진드기, 아메바, 코로나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존재들이 함께 살아간다.

아파트를 만든 ‘사람’조차도 이런 생태계 속에서 여러 생물에게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 책은 평범하게 지나치던 바로 내 곁, 내 집에서도 얼마든지 더 알고 싶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SF 소설가이자 공학박사인 저자의 호기심에서 출발한다. 오랜 시간 화학 업계에서 종사한 그는 현대 도시의 독특한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주거 공간, 아파트에 주목해 ‘생물학 탐사’에 나선다.



**불안이라는 중독**  
저드슨 브루어 지음/ 김태훈 역음/ 김영사 펴냄/ 1만7500원

도저히 끊지 못하는 폭식증과 흡연, 밤 9시만 되면 마시고 마는 맥주 한 캔, 핸드폰만 들여다보다 주말이 순삭,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도 인터넷 쇼핑 구매 버튼을 클릭….

우리는 왜 이나쁜 행동을 끊지 못하는 걸까?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중독 심리학 분야의 세계 권위자인 저자는 책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들려준다.

저자는 불안과 중독 문제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종이 한 장을 주고 습관 고리를 풀어보게 한다. ‘불안하다(축발 인자)-먹는다(행동)-불안으로부터 일시적으로도 망친다(보상, 결과)’. 이 습관 고리가 우리가 오랫동안 익혀온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  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야흐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정장년, 최지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은 문권성시를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체화해 앉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뉴얼과 다르다면, 실패할 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낼까? 성장단계가 제로백주는 대뉴얼 말고 실권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찌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O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권 대뉴얼이자, 혹독한 성장일기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핵심과 모형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에서 출발해 기술됐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를 주는 멘토도 선배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인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민중받기까지 자신과 구성원들의 팔자 앞질,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걱정과 난관이 오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 람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육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역별 지원 제도와 혜택, 구성원 제을 절차, 마을의 자체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이나현 지음 / 203쪽 / 국문판형 / 14,000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1-1709호

## 도시관리계획 (가리봉 구시장부지 행복주택 복합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열람 · 공고

서울특별시 가리봉동 가리봉 舊 시장부지 복합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구로 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신설)

|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가리봉 구시장부지 행복주택 복합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26-40번지 일원 | -     | 증) 3,708.2 | 3,708.2 | -      |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사항 (결정도서 참조)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사항 (변경)

- 용도지역변경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기반시설 공간적 범위 결정 : 주차장 (지하) → 주차장 (지하1~2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신설)

-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다. 기타에 관한 결정 (신설)

- 대지 내 공지

3.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4.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구로구청 도시재생과 (02-860-3298)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02-2133-7866)

서울주택도시공사 근린재생사업부 (02-3410-7359)

5. 열람도서 : 가리봉 구시장부지 행복주택 복합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고 있으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 여기 강원도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미래가치가 높은 청년창업기업을  
폐광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강원랜드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현재 혁신성장유망기업 6개사가 선정되었으며, 총 21개 이상 기업 유치를 목표로 청년기업 발굴·육성과 지역인재양성, 일자리창출, 산업기반 강화를 통해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아티스앤오션



(주)넥스트온



(주)제우기술



(주)블루모션테크



(주)동남메가텍



(주)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 민주당 첫 순회경선서 최하위 득표한 김두관 후보 “단일화·완주 여부, 아직 그런 판단할 때 아냐”

지역분권·균형발전 주창 원조인데  
他후보와 차별점 못 만들어 아쉬움  
정치기반 영남권, 주말 결과에 기대  
누가 후보 되는 ‘원팀’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사진> 의원은 11일 치러지는 민주당 대구, 경북 경선에 기대감을 드러내며 “충청권보다는 나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저의 정치 기반인 같은 영남권이기도 하지만 대구·경북은 이재명, 추미애 후보도 연고가 있는 곳이니 표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진행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단일화 가능성과 경선 완주 의지에 대해선 “아직 그런 판단을 할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첫 순회 경선을 끝냈을 뿐이기 때문에, 다음 경선지인 대구와 강원 지역경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고 또 평가받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지역 분권과 균형 발전을 주창해온 김 의원은 이번 충청 지역별 경선 지지율에서 아쉬운 지지율을 얻었다.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1% 안 되는 지지율을 기록



한 점에 대해선 “물론,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아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원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숙고해 보고 있다”며 “국민선거인단이 주도하는 1차 슈퍼위크에서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 공약이 지역 민심에 소구하는 점에 대해 체감하는 바를 묻자 “지역에 가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는 대단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균형발전, 분권 시책과 지역정책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것에는 제 역할도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후보들이 다 비슷한 공약을 내다 보니, 원조 격으로 주장했던 제가 큰 차별점을 만들지 못했던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다른 분들에게 균형발전이 사이드 메뉴라면, 저는 메인 메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피력했다.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압승을 거둔 1위 이재명 후보와 예상보다 큰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이낙연 후보에 대한 평가도 빼놓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중적인 평가가 당원, 대의원 평가로 수렴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무래도 본선 경쟁력에 있어 이낙연 후보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낙연 후보가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남은 경선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누구보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뚜렷한 비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경선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당연히 평가받겠다”면서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으로 최고의 득표를 얻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사진 연합뉴스

## 발달장애인 ‘꿈과 도전의 핸드볼 리그’ 만든다

SK하이닉스, 8개팀 선발...팀당 한 해 최대 1600만원 운영비 지원

SK하이닉스가 스포츠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핸드볼팀’ 구성을 지원한다.

SK하이닉스는 발달장애인 대상 핸드볼 팀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8개 팀을 선발해 연간 팀별로 최대 16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들과 함께 국내 최초로 전국 단위의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를 추진한다. 모집 대상은 전국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특수학교, 사업체 등으로 최소 12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한 팀을 구성해야 한다.

SK하이닉스는 자사의 핸드볼 구단 ‘SK 호크스’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대상 핸드볼 교실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행복모아’의 핸드볼 팀(행복모아 챌린저스)을 통해 스포츠가 발달장애인의 성장과 사회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러한 성공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핸드볼의 저변을 넓힐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파트너로 참여한 서원대학교장애인스포츠지원센터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각각 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훈련 안내서 제작과 운영 지원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선발된 팀에는 유니폼, 훈련 용품 등과 함께 코치를 통한 정기적인 훈련이 지원된다. 경력이 단절된 은퇴 선수를 코치로 영입해 이들에게 일자리와 보람을 찾을 기회도 제공한다.

SK하이닉스 청주지원담당 문유진 부사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넘어 스포츠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프로그램처럼, 장애인과 그 주변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더욱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 ■ 기사판

**헌법재판연구원장 이현환 아주대 교수**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헌법재판 제도 연구를 전담하는 산하기관인 헌법재판위원회의 새 원장으로 이현환(60)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원대와 아주대에서 30여 년간 헌법 교수로 일했으며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지닥’ 운영사, 최우석 준법감시인 선임**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의 운영사 피어테크는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최우석 준법감시인을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준법감시인은 지난 22년간 구글, 노무라, 씨티은행, 리먼 브러더스 등에서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등을 지냈다.



### NH선물 ‘사랑의 쌀 나눔’ 행사



NH선물은분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추석맞이 지역사회 나눔 프로젝트 ‘본동 행복나누기 쓰담쓰담’과 함께 진행되며, 사랑의 쌀은 취약계층 170가구에 명절음식, 비누꽃다발 등으로 구성된 ‘쓰담쓰담 키트’와 함께 전달된다.

이창호 NH선물 대표이사는 “한가위를 맞이하여 취약계층 지역주민들에게 농민들이 정성으로 수확한 쌀을 전달하여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농촌을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 GS파워, 복지 사각지대 찾아 봉사



GS파워(대표이사 조효제)가 추석 명절 기간을 맞아 우리 지역의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는 ‘사랑 마음’ 릴레이를 시작했다.

GS파워 지역협력팀원들은 8일 무의탁 출소자들의 갇새와 자립을 돕는 부천 중동소재 (사)열린나원을 찾아 후원금 기부와 함께 이들에게 전달될 ‘사랑의 송편 도시락’을 만드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역협력팀원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족들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특히 추적 명절 중후군으로 더욱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원생과 돌봄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자 300여 개의 ‘사랑담은 송편 도시락’을 만드는 봉사활동에 나섰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 BTS ‘버터’ 빌보드 핫100 1위 탈환

리믹스 버전 인기 타고 한달만에...총 10번째 올해 최다 1위

방탄소년단(BTS·사진)의 ‘버터’가 미국 빌보드 차트 정상을 탈환했다.

빌보드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버터’는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말 미국 래퍼 메건 더 스탈리언이 피쳐링한 리믹스 버전이 나온 지 11일 만이다. 이 곡은 청량한 사운드에 멤버들의 각기 다른 색깔의 보컬과 스탈리언의 풍성한 성량의 힘 있는 랩이 조화를 이뤄 새로운 매력을 선사한다.

‘버터’가 ‘핫 100’에서 정상을 밟은 것은 이번이 10번째다. 이로써 올해 최다 1위 기록도 같이 치렀다.

5월 21일 발매된 ‘버터’는 6월 5일 차트 1위에 진입한 후 7주 연속 정상을 지켰다. 이후 7월 24일 방탄소년단의 또 다른 곡 ‘퍼미션 투 댄스’에 잠시 1위를 내줬지만, 7월 31일 다시 정상을 탈환하며 2주 연속 1위에 올랐다. 정상에서 내려온 최근 4주 동안에



도 4위→7위→8위→7위를 기록하며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새 리믹스 버전 발매 첫 주(8월 27일~9월 2일)에 ‘버터’의 다운로드 판매량은 전주보다 108% 증가한 14만 3000건을 기록했다. 스트리밍 수치(1070만 건)도 110% 급증했다.

방탄소년단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아미(팬클럽)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다시 1위로 올라온 ‘버터’라며 “15주 내내 변함없는 보라색(방탄소년단 상징색) 하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 아스트라제네카 CEO “英 부스터샷, 의료체계 부담 가중”

아스트라제네카 최고경영자(CEO)가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3차 접종)에 우려를 표명했다.



7일(현지시간)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파스칼 소리오<사진> 아스트라제네카 CEO는 일간 텔레그래프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리오 CEO는 “영국 내 모든 사람에게 부스터샷이 필요하진 않을 수 있다”며 “전국적인 3차 접종이 시작하면겨우내 국민 보건서비스(NHS)가 추가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NHS 직원과 자원이 부족한 만큼 의료진이 제공하는 암 검진이나 기타 치료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광범위한 부스터샷 추진을 결정하기까지 아직 몇 주는 시간이 있다”며 “그때가 되면 3월에 2차 접종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호 면역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보다 명확한 그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영국에서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사람(16세 이상)은 4353만5098명으로 80.1%로 집계됐다.

텔레그래프는 “3차 접종에 대한 사우샘프턴 대학 병원 연구진의 데이터를 이번 주 백신 접종 및 면역 공동위원회(JCVI)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수일 내 방침이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대영 기자 kodae0@

## 중기중앙회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차형철·이영진 대표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3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차형철<왼쪽 사진> ㈜씨에이치씨랩 대표와 이영진<오른쪽> ㈜제너시스템 대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차 대표는 미국과 유럽 수입에 의존하던 바이오산업 필수장비인 생물안전작업대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했으며 2016년에는 1억 원 이상 고객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 이 대표는 다



수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하고 청년·청소년을 위한 정보기술(IT) 교육 및 강연프로그램에 인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인사

◆국가철도공단◇처장급 △시설개량처장 차문규 △호남본부 호남권사업단장 김용길 △영남본부 안전혁신처장 정종진 △호남본부 안전혁신처장 정선호 ◇부장급 △기술연구처 연구계획부장 김정근 △기술연구처 시스템연구부장 성동일 △시설안전부장 김건호 △철도시설안전합동혁신단 총괄계획부장 윤성민 △자산개발처 역세권기획TF부장 김형민 △수도권본부 용지부장 박주향 △호남본부 시설개량부장 백승호 △강원본부 건설안전부장 나현 △강원본부 시설개량부장 김성용

◆신아일보 △상무이사 임훈순

### ■ 부음

▲박봉임 씨 별세, 김순배(전 IBM)·진

배(전 동준산업 대표)·경배(전 SK종합화학 경영기획실장) 씨 모친상, 정지환(전 KBS 보도국장) 씨 장모상, 이수정(이대부중 교사) 씨 시모상 = 8일,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0일 오전,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2-3410-3151~3

▲정동락(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씨 별세, 심귀희 씨 남편상, 정현경·여경 씨 부친상, 조성범(재미·변호사)·서원진(포스코건설 부장) 씨 장인상 = 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0일 오전 5시, 02-3410-3151

▲조문선(극단 창 연출가) 씨 별세, 최영아 씨 남편상, 조현잠·무강(서울경제TV 영상취재팀 기자) 씨 부친상 = 8일, 부산 온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10일 오전 6시, 051-607-0295

자본시장 속으로



김 호 준  
대신지배구조연구소장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제시한 공정한 관찰자의 보편 정서와 일반 준칙은 수탁자 자본주의에서 보편 소유자와 ESG, 투자 기관이 스스로 정의하는 스투어드십 코드로 부활하고 있다. 수탁자들은 투자금을 운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주의의무) 충실하게(충실의무) 신뢰할 수 있도록(신인의무)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로 꼽았다. 도덕감정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이다. 자신의 행위를 타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라는 의미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행위는 자신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그것은 이성, 원칙, 양심, 가슴 속의 동거인, 내 부인간, 우리 행위의 재판관이자 조정자이다. 이 ‘공정한 관찰자의 눈’에 의해서만 자기애(Self-love)에 의해서 자연히 빠지게 되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 본성에서 비롯된 이성과 양심의 원칙을 믿었다. 인간은 서로 연결된 존재로 서로의 행복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희로애락을 공감(Sympathy)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Selfish)이라고 상정하더라도 인간의 천성(Nature)에는 분명히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 원칙들이 존재한다. 이 원칙들로 인해 인간은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갖게 되며, 단지 그것을 지켜보

는 즐거움 밖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행복이 필요하다”는 것. 선과 악은 이렇듯 이성적이기 이전에 정서적이다. 사회나 국가를 흔히 이성 공동체로만 알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정서 공동체가 실재한다는 탁월한 통찰이다. 스미스는 “자신의 불행을 막기 위하여, 심지어는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하여 이웃을 파멸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찰은 시선이다. 시선은 사물을 어디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장소의 철학을 전제하므로 실은 관점과 통한다. 관점에는 바라보는 기준이 있기 마련이다. 스미스는 도덕감정을 ‘일반준칙(General Rule)’으로 설정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지속해서 관찰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무엇은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타당하고 적정한가에 대한 어떤 일반준칙을 형성한다. 타인의 어떤 행위는 우리의 자연감정(Natural Sentiments)을 격분하게 한다”고 했다. 이러한 일반준칙은 사회의 각종 미담이나 모범 사례들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 제도와 손해배상, 형벌들을 낳게 한다. “우리는 자

신을 기증스럽고, 경멸스럽고 또는 처벌받아 마땅한 대상, 즉 우리가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모든 감정의 대상으로 만드는 그런 행위는 마땅히 피해야 한다는 일반준칙을 스스로 세운다”라 한 스미스는 경제학자가 아닌, 도덕철학과 일반 원칙, 법 제도와 사회질서를 강조하는 ‘정치경제학자’였다. 그는 “불의는 필연적으로 사회를 파괴한다. 힘과 폭력에 의지해서라도 어떻게든 중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후위기와 인권 문제 같은 전 지구적 이슈가 대두되면서 자본주의는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사회 공동의 이슈이므로 공동의 대치가 요구된다. 모든 국민이 납부하는 연기금들과 블랙록 등 거대 해외 자산운용사들이 이러한 이슈들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확산세에 있다. 인류가 ‘돈의 힘’을 활용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상생법을 고안해낸 것이다. 즉, 산업 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지나 ‘수탁자자본주의(Fiduciary Capitalism)’ 시대가 온 것이다. 제임스 홀리 세인트 메리대 교수는 이들을 ‘보편적 소유자

(Universal Owner)’라고 불렀다. 기업은 초기에는 창업자가 경영하지만(경영자 자본주의), 자본시장이 고도화되면서 M&A나 주식연계형 채권(CB, BW), 재무적 투자(FI)와 전략적 투자(SI)가 활성화되면서 주주들이 분산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주주자본주의)된다. 이후 금융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주식의 소유권이 연금이나 뮤추얼 펀드 같은 ‘다양한 수탁 기관들’에게 집중되는 단계가 온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제시한 공정한 관찰자의 보편 정서와 일반 준칙은 수탁자 자본주의에서 보편 소유자와 ESG, 투자 기관이 스스로 정의하는 스투어드십 코드로 부활하고 있다. 수탁자들은 투자금을 운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주의의무) 충실하게(충실의무) 신뢰할 수 있도록(신인의무) 관리해야 할 책임(Accountability)이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Transparency)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재무적 영향과 사회적 가치를 지켜보기 위함이다.

공정한 관찰자인 21세기 국민은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스스로 바라본다.

CEO 칼럼

최 소 현

퍼셉션 대표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로 손꼽히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아이패드 드로잉展 ‘Dreaming of Hockney’에 다녀왔다. 80세가 훌쩍 넘은 작가는 기존의 드로잉 방식 뿐 아니라 아이패드와 뉴미디어를 활용한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전시에 선보인 작품은 디지털 아트인가, 출력 후 액자에 넣었으니 아날로그인가. 요즘은 업종을 막론하고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디지털’을 피할 수 없다. ‘왜 디지털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반복하다 보니 이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최근 모 기업과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을 진행하며 세대별로 팀을 구성했다. 시니어 그룹의 아이디어에는 메타버스며 최신 기술 트렌드가 여러 등장했는데 Z세대 팀에는 그렇다 할 기술이나 디지털 이야기가 많지 않았다. 디지털 네이티브들만 모였는데 어찌 가상현실 같은 아이디어가

없느냐는 질문에 ‘메타버스든 AR(증강현실)이든 결국 뭘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면 되죠. 그건 돌이지 목표가 아닌 것 같아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 순간 모두는 ‘진정 내추럴 디지털 네이티브란 이런 것이군’이라는 깨달음을 만났다.

주변을 보면 디지털 피로감을 호소하며 ‘인간미 없고 효율성만 추구하는 것’, ‘그림에도 잘 모르면 스트레스 받고 말만 들어도 현기증 나는 것’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피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덜 고민하게 된다. 대개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디지털, 노트와 펜을 들고 있으면 아날로그라 하는 1차원적인 해석에 머무르기도 한다.

‘모든 데이터는 0과 1로 구성되어 있고 무한한 확장과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디지털의 기본적인 속성을 보자. 어떤 문제 해결이 나 경험의 차원에서 ‘개인화’ 및 ‘연결과 확장’에 대한 욕구가 점차 강해지는 현실에 ‘디지털’이 아니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

다. 적정 솔루션을 만드는 데 방대한 누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양하게 응용해 지속가능한 진화를 꿈꾼다면 이를 위한 합리적 방법은 ‘디지털 어프로치’일 것이다. 디지털은 ‘관점’일수도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공간에 방문하기 전 내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현장에서는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하고 최적화된 몰입된 경험을 했다면 이것은 디지털 경험인가 아닌가. LED(발광다이오드) 패널과 미래적인 인터페이스가 압도적인 공간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은 콘텐츠를 매번 똑같이 만난다면 이것은 디지털인가 아닌가.

터치스크린에 손가락을 대는 것만으로 디지털 경험이 될 수 없다. 화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세계로 연결해 주고 사용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번거롭고 장황하지 않게 가장 최적의 루트로 안내하는 것, 바로 ‘심플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디지털이다. 여기에서 ‘심플’은 단지 표면의 스타일이 아니라 사용자와 대상 간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의미한다.

이런 차원에서 전시 방식이 꽤 아날로그적이었지만 손에 잡히는 물리적인 구성요소들을 콘텐츠 몰입의 시작점으로 만들어 무한한 상상이 가능하도록 했던 ‘Future Food Expo 2050’ (2019, 암스테르담)의 사례가 생각난다.

데이비드 호크니의 아이패드 드로잉은 툴만 달라졌을 뿐 작품에 담겨진 이야기와 유쾌하고 즐거운 톤은 그대로 살아 있었고, 그에게 디지털은 더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자 전통적인 회화 거장이 갖는 통념적 이미지에 도전하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었다.

결국, 어떤 일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가 중요하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대척점에 놓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인다. 지금 주변을 휩 둘러보고 ‘디지털’이라는 도깨비방망이를 아주 작은 변화를 위해 사용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일상의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 기금 지출 확대에 주력해 왔다. 이런 기조 속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출이 폭증하고, 기금을 통한 고용 위기 대응 한시 사업들을 추진했다. 이에 반해 기금 지출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 노력은 거의 없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기금 사업 정리·혜택 축소 등은 외면하고, 오히려 지출을 확대한 것이 기금 고갈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보험료 인상에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간 지출 효율화 없이 과다 지출에 따른 기금 부족분을 노동자와 사주들에게 전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국민이 과연 동조할까.

기자수첩

서 병 곤 정치경제부/sbg1219@



정부 ‘고용보험료 인상’ 명분 있나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지고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보험료 인상을 노사와 논의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장관 퇴임 이후에도 고용부는 보험료 인상 결정이 아닌 공론화 시작을 강조해 왔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 결정이 노사와의 협의로 도출된 사안이라고 하지만 이를 반기

는 국민들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소상공인(종업원 포함),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국민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렇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보험료 인상이 대두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기금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 절감에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에드워드 텔러 명언  
“과학의 주된 목적은 단순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물을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모든 것은 더 단순해지는 것이다.”  
헝가리 출신 미국의 원자 물리학자. 2차 세계대전 중 맨해튼계획에 참여하였으며, 수소폭탄의 개발·제조에 업적이 크다 하여 ‘수소폭탄의 아버지’로 불린다. 오늘 그는 숨을 거뒀다. 1908~2003.

☆고사성어 / 주급불계부(周急不繼富)  
가난하고 위급한 사람은 도와 주지만 부자는 보태 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논어(論語) 웅야편(雍也篇)에 나온다. 공자(孔子) 제자 공서적(公西赤)이 스승의 심부름으로 제(齊)나라에 갈 때 재정을 맡은 염자(冉子)가 그의 어머니에게 식량을 보내 주자고 해 열여섯 말 승낙을 받았으나 열여섯 섬을 보내자 공자가 꾸짖는 말이다. “적(赤)이 제나라로 갈 때 살뜰 말을 타고 가벼운 가죽옷을 입고 가지 않았더니. 나는 들으니 ‘군자는 급한 사람을 돕고, 부한 사람을 보태 주지 않는다[君子周急不繼富]’ 고 했다.”

☆시사상식 / 콜포비아(Call phobia)  
전화와 공포증의 합성어. 전화통화를 피하는 현상으로 문자나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소통을 선호하는 것을 말한다. 2009년에 처음 등장한 스마트폰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메신저나 문자는 익숙해지지만 전화통화는 어색해하거나 두려워한다.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곳간  
물건을 간직하여 두는 곳. 한자어 고간(庫間)에서 온 말이다. 옛날 중국에서는 창씨(創氏)와 고씨(庫氏)가 대를 이어가며 곳집 지키는 일을 맡아 성을 따 창고(倉庫)라 불렀다.

☆유머 / 가장 듣기 싫은 질문  
거실 전화가 울리자 딸이 받았다. 발자마자 수화기에서 “아저씨네. 딸이구나. 공부 잘하니?”라는 말이 흘러나오자 아빠에게 전화를 바꿔 주며 한 말. “아빠 전화하!”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안병익의  
유러피언 드림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12 브라보, 슈퍼 마리오!

## 10년 전 유로존 위기 잠재운 ECB 드라기 총재 조국 이탈리아 ‘구원투수’도 성공할까

‘중앙은행장의 발언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중앙은행장의 말 한마디가 막강한 힘을 지녔음을 피부로 느낀 적이 있다. 바로 유럽중앙은행(ECB)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로부터다.

2012년 상반기, 당시 단일화폐 유로존은 세계 경제 위기의 진앙지였다. 2년 전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가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스페인(PIGS, 피그스) 등으로 확산됐다. 회원국의 공동 대응이 너무 늦고 미미했기에 유로존의 붕괴가 자주 전망됐다. 이때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이 모든 것을 일거에 잠재웠다.

“유로 수호 모든 조치, 날 믿어 달라”

“유럽중앙은행의 임무 안에서 단일화폐 유로를 수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든 기꺼이 취하겠다. 충분한 조치가 될 것이다. 나를 믿어 달라.”

2012년 7월 26일 드라기 총재는 런던에서 개최된 글로벌 투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발언 후 ECB는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 풀었고(양적완화), 경제가 취약한 일부 유로존 회원국의 국채를 자금시장에서 매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언과 뒤따른 정책 효과를 국제 투자자들은 신뢰했다. 이 정책 실시로 드라기 총재

는 ‘슈퍼 마리오’라는 별명을 얻었다. 유로존의 최대 경제대국이었던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등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2019년 10월, 8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던 드라기 전 ECB 총재가 다시 구원투수로 등단했다. 경제위기에 빠진 조국 이탈리아를 구하기 위해서. 총리 취임 7개월째, 그의 개혁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극우 정당도 참여한 통합정부의 총리

마리오 드라기가 이끄는 통합정부는 2월 13일 출범했다. 오성운동 및 민주당과 같은 중도좌파는 물론이고 반이민, 반이슬람과 반유로를 앞세웠던 포퓰리스트 우파 정당 ‘(북부)동맹’도 이 통합정부에 합류했다.

북부동맹은 유럽연합(EU)의 긴축정책을 비판하며 ‘유럽’과 각을 세웠던 정당이다. 그런데 EU가 지난해 7월 7500억 유로(우리 돈으로 약 1000조 원)의 경제회생기금을 마련하고 이탈리아가 최대 수혜국이 될 듯하자 마음이 바뀌었다.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해 유권자의 지지를 더 받아보자는 셈에서 북부동맹은 드라기 총리의 연립정부에 참여했다.

관광대국 이탈리아의 경우 경제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의 경우 9400만 명 정도가 이 나라를 방문했다. 인구의 1.5배 정도다.

팬데믹은 이탈리아 경제에 직격탄이 됐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무려 마이너스 8.9%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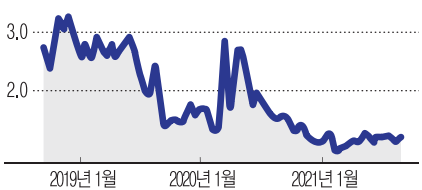
그런데 드라기 취임 후 현재 이탈리아 경제는 순항 중이다. 기저 효과가 있지만 올해 약 5.7%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8월말 현재 70%를 넘었다. 지난 4월부터 봉쇄도 점차 해제되면서 경제가 되살아났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탈리아의 경제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EU에서 독일 연방정부의 국제 분트(Bund)는 다른 국가의 국제과 비교가 되는 기준이다. 분트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와 이탈리아 동일 만기물 국채의 금리 격차(스프레드)가 드라기 취임 후 계속해서 좁혀졌다. 1년 전 이 격차는 1.56% 정도였으나 이달 2일 현재 1.16%를 기록했다. (그래프 참조) 즉,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2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그린패스 사용규칙을 다른 내각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탈리아·독일 10년 채권 스프레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경제를 점차 신뢰하기에 이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

‘빅3’의 하나로 EU 리더십 발휘 계기

대외 환경도 이탈리아에 유리한 편이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함에 따라 경제력과 외교력을 기준으로 이탈리아는 독일, 프랑스에 이어 EU의 주요 3개국(빅3)이다.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통합을 주도해왔지만 두 나라 모두 국내 정치에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지난 16년간 유럽통합을 이끌어왔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9월 26일 총선을 끝으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다. 독일 내 주요 3개 정당의 지지율이 엇비슷해 연정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내년 4월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재선에 전력 집중해야 하기에 유럽 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여지가 적다.

이탈리아는 올해 주요 20개국(G20) 회의의 의장국으로 10월 30~31일에 정상 회담을 개최한다. 드라기 정부는 이 행사를 국격 제고에 최대한 활용할 듯하다.

구조개혁·연금개혁 등 산적한 과제

이처럼 대내외적인 유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은 쉽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 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73세인 드라기 총리의 개혁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이탈리아에서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점, 또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가 총리로 취임해 통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작용했다. 대외적으로 긴축 일변도이던 EU 정책이 팬데믹 때문에 대규모 경제부양책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드라기에게 도움을 줬다. 문제는 오랫동안 일관성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한 구조개혁의 성공 여부다.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2020년)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190개 국가 가운데 58위로, 동유럽의 폴란드나 헝가리보다 한참 뒤쳐진다(우리나라는 5위). 기업 규제가 많고 시장 진입 장벽이 꽤 높다. 투자를 유지해 일자리를 만들려면 이런 규제를 풀어야 한다. 하지만 규제로 이익을 보는 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연금개혁도 쉽지 않다. 이탈리아는 국내총생산(GDP)의 16% 정도를 연금으로 지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 다음으로 이 비중이 높다. 연금 지급액을 줄여야 한다.

역대 정권도 연금개혁을 계속 시도했지만 워낙 반발이 커서 실패했다.

총리 연임 후 대통령 전망까지

이탈리아 경제는 2007년부터 사실상 성장하지 않았다. 저성장과 낮은 생산력, 높은 국가부채라는 최악의 3박자가 결합됐다.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상사분쟁 해결에 평균 514일이 걸린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최장 기간이다.

EU 회원국 간에는 상품이나 서비스,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된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너무 행정이 더디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따라서 독일이나 네덜란드 기업들은 이곳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본국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오히려 이익이 된다고 본다.

이탈리아 총선은 2023년 봄에 예정돼 있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 임기는 내년 봄에 종료된다. 연임이 가능하나 현재 80세의 고령이라 일부에서는 드라기 총리가 차기 대통령으로 물망에 오른다. 이탈리아 경제의 구조개혁을 관철하기 위해서 드라기가 총리로 더 복무하고 2023년에 대통령이 되는 게 최적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어쨌든 구조개혁 성패 여부가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유럽’의 대외 경쟁력 강화에도 매우 중요하다. 개혁에 유리한 ‘기회의 창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다.

팟캐스트 ‘안뎌의 유로톡’ 제작·진행자, ‘하룻밤에 읽는 영국사’ 저자

### 사설

## “정부가 부동산 失政 책임 국민에 전가했다”

국책연구기관 3곳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계속 실패한 책임을 국민에 전가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담은 합동보고서를 내놓아 주목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연구원이 작성해 지난달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의 내용이다. 보고서가 719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 일색이다. 정부를 대변하는 경향의 국책연구기관들이 만든 보고서로는 의아스러울 정도로 문제를 폭넓고 솔직하며 날카롭게 진단했다. 주택과 부동산산업·조세 정책, 부동산금융 정책, 부동산 형사정책 등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현 정부에서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음에도 집값이 급등한 이유들이 담겼다. 연구기관들은 “부동산정책 실패는 시장변화를 간과하고 종래의 규제·과세 중심 부동산관을 답습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문제의 치밀한 분석 없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 조세 및 대출정책 틀을 바꾸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 불안을 키우면서 인위적인 억누르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또 주택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부문은 성과와 실적에 매몰돼 차익과 폭리를 노리는 ‘악덕 투자자’와 다름없게 됐고,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이를 조장하거나 방치했다

고 강력 비판했다. 임대주택 대부분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를 투기의 주범으로 보는 시각도 문제삼았다. 이들에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증과해 민간 임대 시장을 크게 위축시켰고, 여기에 겹증도 안 된 임대차 3법을 강행함으로써 반(反)시장으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자기자본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실정(失政)’의 책임을 국민 탓으로 전가하고, 국민을 향해 징벌적 과세의 애먼 칼을 빼든 것이라며, “순서가 잘못됐고 퇴로 없는 정책은 저항만 낳을 뿐”이라고 썼다. 부동산정책은 가격통제가 목표일 수 없고,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와 조세 등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확한 진단이자, 어느 것 하나 새겨들지 않으면 안 될 내용들이다. KB국민은행이 조사한 8월 전국 아파트 평균시세는 3.3㎡당 2000만 원을 넘었고, 서울의 평균가격도 4000만 원 이상이다. 정책 실패가 쌓인 결과다. 내집 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주거 약자들의 피해만 커진다.

부동산정책의 대전환 없이는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 정권의 근본적인 오류는, 집이 자산형성을 위한 재화이자 경제활동의 한 축임을 부정하고 집 사는 걸 투기로 몰아간 데 있다. 이 그릇된 시각이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결국 악순환이다.

### 마음상담소

## 외롭지만 혼자가 좋다?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있나요?”

혼자 사는 분들에게 던지는 질문 중 하나다. 아쩔 수 없이 1인 가구가 된 비자발적 독거생들이 많다 보니 나홀로 외톨이인지 아니면 관계형 외톨이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은 관계형보다는 나홀로 외톨이가 많았고 혼자 지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홀로 외톨이 성향을 보였다. 지역에서도 1인 가구, 특히 나홀로 외톨이들의 고독사 예방은 물론 고독생이 아닌 행복생을 위해 돌봄활동도 하고 프로그램 참여도 권유하고, 다양한 사회적 교류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돕고자 하지만 이 제안에 선택 응하는 사람은 드물다.

혼자 산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무엇인가? ‘외로움’ 아닌가. 아이러니하게도 혼자 사는 사람들 상당수는 “외로워도 혼자가 좋다”라고 말한다. 외로워도 혼자가 좋다니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나홀로 외톨이들에게 이웃과 말동무도 하고 산책도 같이 하면 심심하지도 않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도 청할 수 있어 좋지 않냐고 물으면 “혼자가 편하다, 다른 사람들과 얹히고설키는 것이 싫다”며 타인과의 관계를 거부한다. 몸이 불편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타인의 방문을 극구 사양하는 사람도 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가 싶어 말해 보면 그도 아니란다. 이유를 물으면 아작은 혼자 지낼 만하다며 귀찮고 성가시고 신경을 써야 하니까 싫다고 한다. 이해

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왜 내 눈에는 그런 속마음이 정반대로 보이는 것일까?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타인과 생각, 감정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기회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들은 독거생이 된 이후 관계 단절을 경험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데다 혼자 지낸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이 만성화되어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다. 말로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도 막상 만나면 이야기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했던 얘기 하고 또 하고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걸 보면 사람이 그리운 것임이 분명하다.

지금은 옆집에 사는 이웃의 얼굴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는 이웃사촌이라 하였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사는 자식보다 낫다’는 말로 이웃과 서로 의지하며 살던 시절이 있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보다는 가까이 사는 사람들끼리 정을 나누며 함께 어울려 살면 좋으련만, 이웃사촌이 익숙한 어르신들도 요즘은 세태가 변하고 세상이 각박해진 탓에 이웃과 거리를 두며 산다.

노년이 된 친구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가 생활동반자가 되어주는 ‘같이 삽시다’라는 TV 예능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나홀로 외톨이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삶의 형태가 출구가 아닐까 싶다.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혈연에만 의존하던 과거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김현주 서울 강서구보건소 사회복지사

SAMSUNG



말할 거예요 이제 우리 결혼해요 그럼 늦은 저녁 헤어지며 아쉬워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실수해도 겁낼 필요 없는 **BESPOKE 인덕션** 공간에 꼭 맞춰주는 **BESPOKE 냉장고 & 식기세척기**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BESPOKE 그랑데<sup>서</sup>** 우리의 시간을 특별하게 **The Premiere**

나도 모르게 겁이 나요 꼭 붙들어줘 같이 처음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시간



믿을 수 있는 **BESPOKE 큐브<sup>™</sup> Air** 반할 수 밖에 없는 **BESPOKE 에어드레서** 너무 멋져 보이는 **BESPOKE 무풍에어컨**  
나는 당신을 믿을게요 그대에게 나 반한 것 같아 말은 안 했지만 너무 멋져 보여요



그대처럼 작품같은 TV **The Frame** 반할 만큼 깨끗하게 **BESPOKE 제트** 후회 없는 시간을 위한 **더플레이트 인덕션**  
그대에게 나 반한 것 같아 말한 뒤에라도 후회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처음 사랑한 집  
우리가 처음 사랑한 가전  
**삼성 신혼가전**



**비스포크 웨딩 클럽**  
가구·예물부터 신혼가전까지  
놀라운 혜택을 한번에!  
삼성닷컴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가입기간: 21.08.01~21.10.31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 참고



가전을 나답게.